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국가로 출발한 미국이 점점 더 말씀에 역행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킬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디모데전서 6:11)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4월 25일 (토) 제 1530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하나님 마음 아는 대통령 원한다!

## 미 언론, 힐러리 클린턴 대선 출마선언 따라 본격 시작된 '2016 대선 관전포인트 보도'

### '보수+변화 원하는 유권자' vs. '소수계+백인 진보연합'

2016 대선은 '보수+변화 원하는 유권자' vs. '소수계+백인 진보연합'의 대결 구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퓨리서치가 행한 지난 2월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커다란 지지층이었던 소수계, 백인 진보세력과 고령화되고 있으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보수, 백인세력의 대결이 바로 2016 대선의 관전 포인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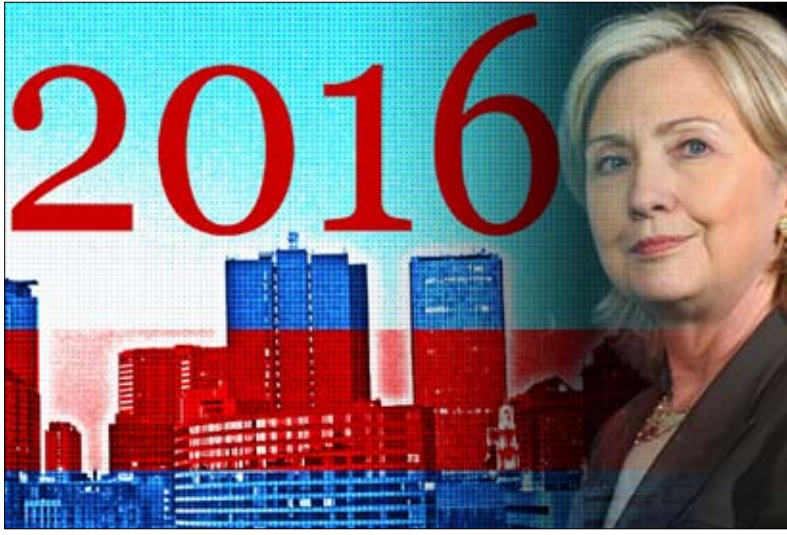
따라서 민주, 공화당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67) 전 국무장관이 12일, 2016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미국 대선전의 서막이 올랐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선거캠페인 홈페이지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2분18초짜리 동영상 통해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2008년 대선에 이어 두 번째 대선 도전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미국인들이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지만, 여전히 상황은 상원계층에 유리하게 짜여 있다"며 "평범한 미국인들은 대변자(챔피언)를 필요로 하고 있고 내가 그 대변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공화당에서는 테드 크루즈, 랜드 폴 상원의원이 이미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조시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인 쟈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조만간 출마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 언론은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뉴스위크와 릴리언뉴스서비스를 통해, 힐러리의 장단점과 신앙적 배경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뉴스위크'는 2008년 대선에 도전했으나 오바마 현 대통령에게 밀린 힐러리가 이제는 진정한 '챔피언'이 되고 싶다는 그녀의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을 인용하면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고 진단한다(Hillary Clinton: All You Need to Know). 뉴스위크는 먼저, 그녀의 기본 정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이름: 힐러리 다이앤 로댐 클린턴  
-생년월일: 1947년 10월 26일  
-출생지: 일리노이주 시카고 종교: 감리교  
-혼인 여부: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결혼 자녀 첼시(35)  
-학력: 웨슬리대학(학사), 예일

로스쿨(법학박사)  
-경력: 미국 국무장관(2009-2013), 미국 연방 상원의원(뉴욕주, 2001-2009), 미국 퍼스트레이디(1993-2001), 아칸소 주 퍼스트레이디(1979-1981, 1983-1992), 로즈 법률회사 변호사(1976-1992), 아칸소대학 로스쿨 부교수(1974-1977, 1979-1980), 미국 아동보호 기금 변호사(1973-1974).  
그녀의 정계 경력은 20년이 넘는다. 따라서 이미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일반인이 잊어버렸거나 잘 모를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 있다. 첫째, 클린턴은 원래 공화당원이었다(웨슬리대학 시절 청년공화당클럽 회장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출마를 선언하자 그녀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힐러리는 15일 동성결혼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CNN 방송 등이 보도한 바 있다.

선출했다. 둘째, 자동차를 직접 몰지 않은 지 거의 20년이 됐다.

클린턴이 2013년 미국 국무장관에서 물러났을 때 미국인의 약 3분의 2가 그를 좋아했다. 지금은 절반 정도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어느 잠재적 후보보다 유권자 선호도가 높다.

그처럼 오랫동안 미 전역에서 지명도를 높게 유지하면 친구가 많아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적도 많이 생긴다. 친구 쪽은 건강보험 개혁과 여권 신장 같은 클린턴의 선구적인 업적을 높이 평가하지만, 반대쪽은 실재든 조작이든 각종 실수나 스캔들을 다시 들춘다. 기대하시라. 뱅가치 사건과 이메일게이트는 앞으로 수없이 거론될 것이다.

또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실

패를 주장하며 클린턴과 그를 연계시킬 것이다. 따라서 일부 이슈에 선 클린턴이 오바마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게 불가피하다. 바로 보수+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의 종교 색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과연 그녀 역시 진보적인 민주당의 방향에 맞게 기독교 신앙을 개인의 영역에만 인정하는 정치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경적 가치에 따른 크리스천 정치인이 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의문이 되고 있다.

'릴리언뉴스서비스'는 따라서 시기적절한 보도를 해주고 있다(5 Facts About Hillary Clinton's Faith).

(6면으로 계속)

## 사이언톨로지 현 리더 아내 셀리는 어디에?

### 허핑턴포스트, HBO다큐 '고잉 클리어' 에 안 나온 놀라운 이야기 보도

신종 종교 사이언톨로지 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알렉스 기브니의 다큐멘터리 '고잉 클리어: 사이언톨로지 and the Prison of Belief'은 이런 이상한 점들을 다룬다. 그런데 최근 일요일 미국 HBO에서 방영된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하나 빠진 부분이 있었다. 바로 미셀 '셀리' 미스카비지의 행방이다.

셀리 미스카비지는 현재 사이언톨로지의 리더인 데이비드 미스카비지의 아내이자 교회의 '바다 조직(Sea Organization)' 회원이다. 기브니의 다큐멘터리는 원래 로렌스 라이트가 쓴 동명의 책을 근거로 제작됐는데, 그 책을 의하면 그녀가 2006년 6월부터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또 2007년 8월 이후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는 보도도 있다. 따라서 허핑턴포스트는 그 의문을 추적한다('This Is One Of The Most Shocking Scientology Stories Not In 'Going Clear)').

로렌스 라이트와 저널리스트 토니 오르테가에 의하면, 2006년 남편 데이비드 미스카비지가 교회를 비운 사이에 셀리 미스카비지가 임의로 교회의 조직원들을 임명했다고 한다. 원래 남편의 일이었다가 그가 늘 힘들어하고 "끊임 없이 신경질" 내던 임무 중 하나였다고 한다. 라이트의 책 '고잉 클리어'는 셀리의 시동생인 존 브루소의 말을 빌려 데이비드 미스카비지가 돌아왔을 때 셀리의 분위기가 많이 변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배우이자 전 사이언톨로지 교인인 리아 레미니는 셀리 미스카비지의 실종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시하며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바다 조직'의 이전 회원인 마이크 린더에 의하면 2006년 톰 크루즈와 케이트 홈스 결혼식에 참석한 레미니가 셀리에 대해 물었다고 한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교회 측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나중엔 "추궁을 받았으며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됐다"고 뉴욕 포스트는 보도했다(레미니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알려졌다).

2013년 6월에 레미니는 사이언톨로지를 나오는데, 곧바로 경찰에 교회 리더인 아내를 실종 신고했다.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신고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결정 내렸다. 교회는 당시 성명서를 통해 "교회를 향한 단순한 괴롭힘"이라며 "인터넷 주변에서 기웃거리며 연명하는 실업자, 미치광이들이 조작한 홍보성 선전 행위"라고 밝혔다.

라이트는 자신의 책에서 셀리의 실종을 다루는데 다큐멘터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주에 있었던 언론사 스크리닝에서 감독 기브니는 빠진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다른 류의 사람들을 주제로 다루었다면 셀리 미스카비지 이야기가 영화에 포함됐을 수도 있었을 거다." 기브니는 편집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영상을 빼야 했는데 - 언젠가 HBO를 통해 후속 작품으로 발표하고자 한다고 하는 - 교회 리더의 아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온라인 뉴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말했다.

(8면으로 계속)



2면

쿠바, 50년 만에 개방... 북음의 빛 전하재!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회중을 예배에 몰입하게 하라



16면

사역 현장을 찾아서 한철호 선교사

#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해외총회 소집공고

## The General Assembly of Overseas(Hap-Dong)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각 노회와 본 총회 총대원 여러분 배후에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비상총회 소집을 공고하오니 참석하셔서 과거의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잡고 본 교단의 정체성을 회복코저 하오니 다함께 협력해 주심 바랍니다.

- 주 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 일 시: 주후 2015년 5월 18일(월) 오후 4시 - 19일(화) 12:00 까지
- 장 소: 주 예수 사랑 교회(강유남 목사 시무)  
1155 Hendricks Cswy Ridgefield NJ 07657  
(551)655-4224, (201)941-5555

- 숙 소: 총회장소 인접 힐턴호텔
- 참 고: (1) 각 노회 총대는 총회전까지 명단과 현의 건을 보내주시 바랍니다.  
(2) 회비 \$100, 부부동반 \$150  
(3) 숙식은 총회에서 부담하며 숙소는 도착 순으로 배정함

- 3대 혁신: (1) 과거 불법과 관행적인 편법을 단호히 혁신함  
(2) 개혁주의 칼빈 신학사상 정칙로 교단의 정체성을 회복함  
(3) 이중 교적자 및 한국의 목회자와 기준 미달자는 제외됨
- 유의사항: 기참공항은 New Wark Airport 로 하시고 도착시간을 알려주시면 안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연 락 처: Tel.(718)445-0362, Tel(551)655-4224

주후 2015년 4월 25일

비상대책위원장: 정익수 목사(직전총회장)  
비상대책서기: 엄기환 목사(증경총회장)  
비상대책위원: 총무 및 각 노회장  
준비위원장: 홍성표 목사  
환영위원장: 이대길 목사



#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해외총회

## The General Assembly of Overseas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 시론

## 사슴나무골에서(16): 한국 교회의 강점과 약점(1)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20여년전 뒤늦게 신학교에 진학했을 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비롯한 조직신학, 성경신학, 교회사, 성경해석학, 변증학, 실천신학 등 상상할 수 없는 신학적 세계를 접하면서 한 편으로는 기쁨을 누리면서도 웬지 모르게 영성은 매달라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결국 한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신학교 캠퍼스에서 새벽기도모임을 시작했고, 나중에는 미국인 교수들까지 기도모임에 참여하며 타인종 신학생들까지 기도 제목을 갖고 모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설교와 교수님을 비롯한 교수진들은 한국교회의 초청을 받아 한국 방문을 하고 온 후, 한국교회와 한인 이민교회, 한인 신학생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서 벗어나 한국 기독교의 영성을 수업 시간 중에 모든 학생들에게 소개할 정도로 신선한 충격을 가져오기도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목회를 하고 계셨던 일부 실천신학 교수님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에 새벽예배를 도입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미국 기독교역사에서는 전대미문의 일이었습니다. 여성 안수집사와 여성 장로를 세우지 않는 보수 장로교단에서 여성 리더 격인 한국형 권사제도를 도입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민주적이고 자유분방해 보이는 미국 교단과 교계를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단 나름대로의 전통과 교단 헌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타 교단과의 차별화를 엄격히 지키고 있음을 봅니다. 외양으로는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교단들도 실상 내부적으로는 교단의 헌법과 내규를 사수하기위해 엄격한 처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동성애자 결혼인정 및 안수에 관한 교단 입장이 결정되지 수많은 내부 반발이 따르고 결국 교단 이탈이 속출되고 있음에도 융통성을 보이지 않는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는 모습에서 그 경직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교회들은 미국이나 다른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다양한 교단과 또 그 교단에서 분파된 수많은 교파들이 공존하는 기독교 백화점과도 같은 양상을 띠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명목상의 소속 교단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다수 교회들은 소위 "순복음 장로교"라는 단일 교파적 모습을 갖고 있다는 우스개 소리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줄 압니다. 미국의 침례교회나 감리교회에서는 장로를 선출하거나 장로로 불리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장로가 안수집사보다 우월한 직분자라는 인식에서 장로교단이 아닌 교회들조차 장로 직분을 부여하거나, 장로 직분을 받고 들어온 사람들을 교회 내에서 동일하게 장로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원래 남성 권사제도가 있음에도 여성리더들을 위한 여성 권사까지 받아들이다보니, 장로의 역할을 하던 남성 권사의 직분까지 그 빛이 바래가는 느낌입니다. 당회라는 제도 역시 교단을 초월해서 정착되어왔고, 교회 내 의사결정의 최고 기구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교단이 달라도 성장하는 이웃 교회의 정치제도는 교단의 헌법까지 고치거나 무시하면서까지 당연히 도입해야만 하는 규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목회적 차원에서는 여의도순복음교회로 대표되는 순복음교단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30여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의 전통적 예배에서 교인들이 박수를 치며 현란한 타악기와 반주에 맞추어 복음성가를 부르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대형교회들은 수백만불을 호가하는 최고급 음향시설과 다양한 악기들, 영상 시설을 완벽하고 전담 찬양 사역자들과 찬양팀들을 만들어, 주일예배시 호수 힐송교회의 찬양을 방불케 하는 전문적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교역자들은 매 예배마다 목침이 떠나갈 듯 통성기도 시간을 인도하며, 새벽예배, 금요기도회, 철야기도모임에서는 원래의 순복음 교단 교회들보다 더 뜨거운 기도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신학자들과 미국 목회자들의 한결같은 의견도 다양한 교단의 교회들을 방문했지만, 교단의 특성보다는 한국교회라고 하는 공통적 신앙과 목회의 현장을 볼 수 있었다고 한 증언들도 이 사실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들의 이러한 목회적 연합은 선교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바, 세례와 침례같은 성례의 방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차이점 외에는 신학적, 교리적 차이점들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현지인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의 공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 쿠바, 50년 만에 개방...복음의 빛 전하자!

## 뉴스위크, “경제적 성공 기대, 희망에 부풀었다” 보도

지난해 12월 18일 미국과 쿠바는 53년간의 냉전 관계를 끊고 다시 국교를 정상화했다. 이로써 반세기 만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냉전이 종식된 것이다. 쿠바는 1959년 공산혁명 전까지 만해도 '중남미의 진주'라는 별명이 손색이 없었다. 수도인 아바나의 건물 하나하나가 예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혁명 이후 한 번도 페인트칠이나 보수공사를 하지 못해서 보기 흉하지만 풍기는 멋과 가치는 대단하다. 당시에 미국과 견줄 수 있었던 중남미의 유일한 나라였으며 저력이 있는 나라였다.

쿠바가 50여 년 만에 처음 문호를 개방하면서 희망과 투자, 돈이 공중에 떠다니기 시작한다. 무엇이든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가 될 수 있다. 부동산, 건설, 통신, 관광 등. 자전거, 자동차 수리점부터 배관공사, 식당, 택시까지 소규모 비즈니스가 전부 성장할 태세다. 2012년 프리덤 하우스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쿠바인이

인구의 5%에 불과한데도(쿠바인 중 23%는 정부가 허가한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 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가 최근 쿠바 진출을 발표했다. 그 다음은 어떤 대형 미국 브랜드가 진출할까? 홈데포? 베스트바이? 맥도널드? 로열 캐리비안 인터내셔널? 도널드 트럼프?

선교적 측면에서도, 쿠바에 거는 기대가 많아지고 있다. 카스트로의 공산혁명 전, 거의 80% 이상이 가톨릭이었다가 갑자기 사회주의 체제 수용으로 인한 물질적인 절대 결핍으로, 영적인 풍요로움을 찾으려는 쿠바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국교 재개로 인한 희망과 투자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지혜롭게 조절하면서, 쿠바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뉴스위크는 쿠바 현지에서 쿠바에 밀어닥치고 있는 빛과 그림자를 조명한다(Cuba's Bay of Fat Cats).

쿠바와 미국 사이의 거리는 약 145km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게릴라 부대를 이끈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독재자 풀헨시오 바티스타를 타도한 1959년 이래 쿠바에선 사실상 시계바늘이 멈춰 섰다. 카스트로의 공산주의 통치 아래 교육과 의료는 무료였지만 경제가 무너지고 빈곤이 확산됐으며, 쿠바인은 해외여행을 거의 할 수 없었다. 카스트로는 오랫동안 비판자들을 처벌하고 탄압했다. 쿠바 인권재단에 따르면 2013년 일의 구급된 인권운동가가 6000명을 넘었다. 표현의 자유는 아예 없었고, 국가가 모든 공식 미디어를 소유했다. 정부는 블로거를 위협했고 언론인을 구금했다.

1982년 이래 쿠바는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2013년 미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쿠바는 스페인 바스크 조국과 자유(ETA),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대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고, 미국이 수배한 탈주자들을 숨겨줬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서 쿠바인은 미국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 지위를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화당은 그런 조치에 완강히 반대한다.

2008년 쿠바 정권은 피델 카스트로에게서 동생 라울로 넘어갔다. 지난 몇 년 동안 라울은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했다. 쿠바인이 해외여행을 더 쉽게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와 주택 매매를 허용하고, 100여 가지 자영업을 합법화하고, 쿠바인의 국제 호텔 숙박을 허용했다. 그동안 쿠바인의 고급 호텔 숙박이 불허된 것은 호텔에서 외국인용 화폐(CUC)만 받았고, 호텔이 정부가 마약과 매춘의 온상이 되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라울의 개혁이 정착을 받긴 했지만 대다수 쿠바인의 경제적 현실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대다수는 그런 사치를 누릴 여유가 없다.



롱은 이렇게 말했다. "쿠바의 비공식 경제는 그 규모가 거대하다. 사회의 많은 부분이 거기서 기업이 정신을 연마할 수 있다. 화가 등 일부는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수완이 아주 좋다. 그러나 성격 때문이든 당과 기관의 엄격한 감시 때문이든 바른 길만 걸은 사람은 암시장을 잘 모른다. 그런 사람은 출발이 약간 늦을 수 있다."

쿠바의 관영 여행사 산크리스토폴에서 가이드로 일하는 메일린 베르날(32)은 "변화는 언제나 어떤 사람에겐 좋고 어떤 사람에

## 사회주의 체제로 얻은 이점: 물질적 절대 결핍으로 영적 풍요 갈망 문맹퇴치운동으로 지적 질적 능력 갖춰

2000-2004년 미국 정부의 라틴아메리카 정보 관리를 지냈고 현재 아메리칸대학 라틴아메리카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폴턴 암스트롱은 이렇게 말했다. "개혁이라고 하지만 열의가 없었고 결핍하면 중단됐으며 국소적으로 이뤄졌을 뿐이다. 새로운 자본의 유입과 무역이 없으면 기회가 있다고 해도 그런 기회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없다."

쿠바인의 월 평균 소득은 20달러도 채 안 된다. 지난해 몇몇 의사의 경우 월급이 26달러에서 67달러로 올랐다고 알려졌다. 온 국민이 생필품과 먹을 음식의 절대 부족으로 허덕인다. 화장실에는 휴지나 치약이 없다. 한 달 급료가 미화 7달러에서 19달러 정도다. 생당 한 마리가 5달러 정도한다. 한 달에 쌀 2.5kg과 강낭콩, 감자 한 알, 약간의 식용유, 계란 몇 알, 그리고 매일 밀가루 빵 한 개가 지급된다. 그것도 공짜가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

먹는다. 그래서 쿠바사람들은 대개 하루 한 끼로 연명한다. 굴러다니는 자동차들은 모두 40년대, 50년대 차들이다. 20년대 고물차도 잘 굴러다닌다.

쿠바 인구는 1100만 명이다. 그 중 다수는 미국-쿠바 관계의 해빙으로 혜택을 볼 듯하다. 상인, 농민, 해외 거주 친척의 송금을 받아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암스트

론은 이렇게 말했다. "일자리와 그 소득에 따라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누가 기뻐하지 않겠나. 고생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말이다."

아바나의 도심 베다도는 파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쿠바계 미국인 사업가 우고 칸시오(50)는 베다도에서 서서히 미디어 제작을 건설했다. (16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포) /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포)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 2015년 봄학기 박사과정 특강안내

- ▶ 4월 특강 (April 20-24, 2015)  
CC 843 Current Issues in Counseling and Psychology  
Dr. Jong Cheon Lee
- ▶ 6월 특강 (June 9-11, 2015)  
CM 827 Church Music and Literature  
Dr. Dae Gweon Kim

###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 in Music 음악학  
BA in Theology 신학, 기독교교육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 in Music 음악학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Div 신학석사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



#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고백은 영혼에 유익하다!

## 리더십저널, 맥스 루케이도 목사의 “진정한 고백” 이 주는 영적 유익 소개

고백. 이 단어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이미지들을 불러일으킨다. 비밀 심문. 중국식 물고문. 검은 커튼 뒤의 사제에게 불륜을 시인하는 것. 교회 강단 앞으로 나가 카드를 작성하는 것. 과연 요한은 이런 것들을 영두에 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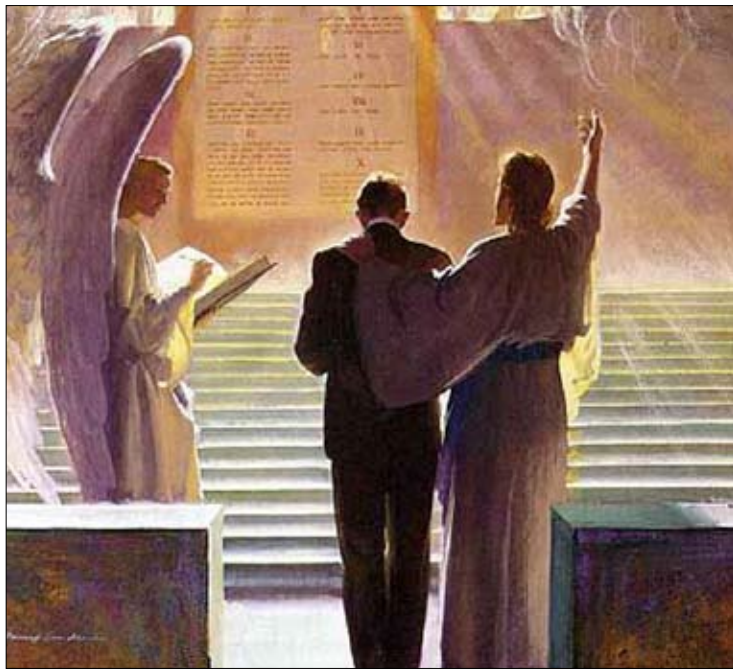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고백은 불평이 아니다. 내 문제와 고민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은 우는 소리에 불과하다. 고백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 내 잘못은 묻어두고 남들만 손가락질하면 기분은 좋겠지만,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

고백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다. 고백은 철저히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내 죄보다 더 크십니다. 그래서 제 죄를 고백합니다”라고 시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은혜를 작게 여기면, 고백도 작을 수밖에 없다. 마지못해, 머뭇거리며, 갖가지 변명과 자기에 얽매며,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큰 은혜는 정직한 고백을 낳는다고,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오크힐스교회를 섬기면서 저술 활동을 통해 크리스천들에게 유익을 주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는 권면한다(True Confession).

가장 유명한 고백 기도를 꼽으라면 다윗 왕이 아닐까 싶다. 그 고백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말이다. 이 구약 성경의 영웅은 하나님 없이 명징하고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느라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흘려보냈다.

어리석은 결정 1: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한가롭게 연애 생각이나 하면서 집에서 너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것이 화근이었다. 왕궁 옥상을 거닐던 그의 눈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이 들어왔다.

어리석은 결정 2: 다윗은 종들을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



와 바쳐 있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짜증이 난다. 결핍하면 흥분한다. 화를 내고 기분이 언짢다. 당신이 영적 지도자라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도 예민해진다. 당연하다. 수치심의 몸체가 당신 영혼에 딱 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뽑아내고 싶은가? 고백하라. 왕만금이나 목회자에게도 고백이 필요하다. 영적 MRI를 요청하라. “하나님, 나를 살살이 살펴보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세요.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세요,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

### 고백하지 않은 죄는 영혼에 쫓힌 칼날 같아 다윗처럼 은혜에 기초한 고백의 기도 해야

와 자기 침실로 안내했다. 바닥에는 장미꽃잎이 깔려 있고, 한쪽에는 차가운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었다. 몇 주 후, 밧세바는 임신 소식을 전했고, 아직도 울지 못한 다윗은 헤어 나오지 못한 다윗은 자기 계획을 계속 밀어붙였다.

어리석은 결정 3, 4, 5: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을 속이고 그를 살해한 다음, 아무것도 모른 척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다윗은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 다윗, 맞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었다. 그는 자기 잘못을 숨겼고, 그 때문에 큰 대가를 치렀다. 그는 나중에 이 일을 이렇게 회고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허가 여름 가슴에 풀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시32:3-4).

그는 자신의 은밀한 죄가 더 이상 은밀한 죄가 아님을 알고,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므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내 몸의 상처가 끓어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에 성한 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시38:1-3, 5, 7).

잘못을 숨기면 고통이 찾아온다. 고백하지 않은 죄는 영혼에 쫓힌 칼날이다. 그 칼날로 인한 비참함은 피할 길이 없다.

내 말이 안 믿기면, 리 푸엔에게 물어보라. 이 중국 남성은 육

신거리는 두통을 해결하려고 온갖 치료를 다 받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결국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야 범인을 찾았다.

10센티미터나 되는 녹슨 칼날이 머리에 4년간 쫓혀 있었던 것이다. 강도와 격투를 벌이던 푸엔은 오른쪽 턱에 찌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칼날이 부러진 채 머릿속에 박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낀 것도 당연하다.

우리는 몸속에 이물질들을 묻어 놓고는 살 수 없다. 영혼에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내면을 엑스레이로 촬영하면 어떻게 나올까? 10대 시절 풋내기 관계에 대한 후회? 잘못된 선택에 대한 회한? 내 맘 같지 않은 결혼생활, 끊지 못한 습관, 거절하지 못한 유혹, 비겁한 비참함은 피할 길이 없다. 내 말이 안 믿기면, 리 푸엔에게 물어보라. 이 중국 남성은 육

도하여 주십시오”(시139:23-24). 하나님이 잘못을 알려주시면, 그 분께 동의하고 용서를 빌라. 주님이 상처에 부여하시는 은혜를 받으라.

우리도 다윗처럼 은혜에 기초한 고백의 기도를 해야 한다. 1년 가까이 부정하고 은폐만 하던 그는 결국 이런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시 51:1-4).

##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 목사와 자존심 (상)

#### 목사의 삶, 인고의 세월

넉넉한 유산을 물려받지 않는 한 목사가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돈도 많고, 교회도 크고, 목회도 잘하는 목회자가 있다고 한다. 그들이 부럽다. 그리고 시기하다. 어떻게 다 갖출 수 있을까?

이왕에 안고 가야 할 가난이라면 갈무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부도 갈무리를 잘못하면 가난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진다. 부자체는 누가 소유하던 악도 죄도 아니다. 그러나 그 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귀천이 결정된다. 바로 벌어 바로 쓰는 것은 고귀한 부다.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삶을 위해 값지게 쓰는 것은 깨끗한 부다. 그러나 목적이 수단도 개의치 않고 협잡의 대가로 이룬 부는 추한 부다. 제아무리 대형 부를 축적하고 재벌이 되었더라도 주색잡기로 탕진하고 이기적 삶을 위해 투자하는 부라면 그 명이 길지 못하다.

필자가 내린 결론은 깨끗하고 정당하게 가난관리를 해야겠다는 것이었다. 바울은 부할 때 가난했고 가난할 때 부를 누릴 줄 아는 자유인이었다. 그는 풍유와 비천의 두 세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달인이었다.

교회는 이의 창출을 위한 기업을 아니기 때문에 교회 돈이 곧 목사 돈이라는 황당한 가설이 성립되지 않는다. 교회는 대화와 하고 예산 규모가 불어나지만 그렇다고 목회자가 무한정 교회재정 운영에 전권을 일삼을 수 없다. 그리고 언제나 목회자는 ‘가난하다. 청렴하다. 사심이 없다. 투명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좋다. 그러나 반대로 ‘사욕이 강하다. 내려놓지 않는다. 흑막이 있다’는 평은 목사가 들어선 안될 말이다.

목사도 많은 돈이 필요하다. 올곧게 쓰고 나눠야 할 곳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을 밝히거나 탐하면 안된다. 거기에 반드시 유혹과 시험이 울무로 치고 있기 때문이다.

목회 기간 중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먹고살 걱정이 없는 목사는 현장정리가 쉽다. ‘내가 여기 아니면 목회할 데가 없나? 먹고살기 위해 그 수모를 다 견뎌야 하나?’라며 교회 포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그럴 상황이 아닌 목사는 ‘가진 어딜 가? 여기서 견뎌야지’라고 인고의 씨름을 하게 된다. 필자의 경우도 후자였다.

목회를 크게 자아목회, 가정목회, 교회목회로 나눌 수 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대다수 자아목회 실패가 단초가 되어 목회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정상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성공을 잘못 다루면 추락한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바르게 다루면 기회가 되고 재기와 성공의 출발점이 된다. 이것은 ‘성공학’의 정론이다.

필자는 어린 시절부터 ‘자존심’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가난해도 가난한 티를 보이지 말자. 없다고 궁하고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훈련하고 조종했다. 신학교 재학시절 룸메이트들도 필자가 가난과 싸우고 있다는 것, 하루 세 끼 기숙사 밥을 먹지 못하고 한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공색한 모습을 보인다고 도와줄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 초라해진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친구가 퍼뜨린 유언비어는 “박종순이는 안양에 땅이 3만평 있단다”, “부자집 막내아들이란다”라는 것이었다. 이런 소문이 퍼져 사실 확인을 하려 드는 사람들이 많았다. 웃기는 일인 하지만 ‘박종순이는 거지, 비렁뱅이, 제때 등록금 못 내는 사람, 하루 한 끼로 버티는 고학생’이라는 말보다는 훨씬 낫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었다. 물론 불필요한 자존심으로서 자신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생각은 필자의 목회에도 녹아들었다. ‘안 주변 안 먹고, 없으면 안 쓰고, 먹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으면 죽어도 좋다’라는 것이 필자의 자기관리 철학이다.

(“완주자의 노래-40년 목회이야기” 중 발췌)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역을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On Campus Courses

### 2015 봄학기 지역강의 안내

April 13-17 (4월 13일-17일)  
DI 8230 Cultures in the New Testament  
Dr. Matthew Harmon

### 2015년 졸업식

일시: 2015년 5월 9일(토) 오전 9시  
장소: Manahan Orthopaedic Capital Center (그레이스 대학교 캠퍼스내)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빛과 소금으로...



염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 나의 초년 목회 (1)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목회 초년기를 그려봅니다. 전라도 정읍에 소재하고 있는 개척교회 부임하였을 때 일입니다. 그 교회를 개척한 동료 목사가 학업을 위해 개척 한지 일 년 만에 서울로 올라가게 되어 후임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전임 목사의 설명으로는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와 사

업을 하시는 기업인으로부터 선교 후원을 받고 있으니 개척교회라도 목회활동과 교회 살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후 6개월 된 아들과 아내와 함께 힘차게 목회지로 향했습니다. 젊은 혈기에 열심을 다하여 목회에 정진했습니다. 그런데 부임한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건만

선교 후원을 한다는 교회와 기업인으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비상급도 바닥이 나서 아이 우유를 사먹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마음에 기차를 타고 선교 후원 처를 찾아갔습니다. 교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식품제조업을 하시는 집사님께서 고향인 정읍에 교회 개척을 위해 개인적으로 선교 후원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집사님게신 곳을 수소문하여 찾아갔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식품 제조업을 하시다가 사업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접으시고 모래네 시장 한 귀퉁이에서 작은 상점을 하고 계셨습니다. 누가 봐도 어려워 보이는 형편이었습니다. 선교 후원금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드리지 못한 채 사업장을 위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오는 기차를 탔습니다. 사역지로 돌아온 저에게 교회 건물주인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저희 가족에게 다정하게 잘 대해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시던 주인이주머니께서 민망한 표

정을 지으시면서 월세를 올려 받아야 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회건물을 얻기 위해 이곳저곳 찾아 다녀야했습니다. 그 때만 해도 정읍은 소도시라 번듯한 건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친데 겹친다고 사택도 옮겨야 하는 실정에 놓였습니다. 하루는 복덕방(부동산중개소) 아저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상평동이라는 곳에 셋집이 하나 났는데 가서 보겠느냐는 연락이었습니다. 상평동은 정읍에서 조금 들어왔은 외곽 지역으로 철거민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 신생 마을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소개한 집은 마당이 아주 넓은 이태리식 주택이었습니다. 방3개에 부엌과 거실이 있고 다락방이 있었는데 약 25평 이상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아직 교회도 없고 다락에서 교회로 모이던 될 것 같아 계약을 했습니다. 그 집 주인은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경기도로 영전하시게 되었고 그

곳에는 사택이 있어 이집을 전세 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사 날짜가 급해서 먼저 이사를 들어가 함께 한 달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에게 집살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형편에 살수 없다고 말씀드리니 선생님께서는 이자 없이 나누어 갚으라고 하시면서 집 명의를 넘겨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학생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이 학생, 청년, 주일학교, 병약한 성도 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 이로 말미암아 많은 환자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한 가족같이 밥을 지어 먹으며 지냈습니다. 반찬이라고는 김치와 찌지가 고작이었습니다. 큰 밥술에 밥을 하여도 순식간에 밥통을 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쌀통에 쌀이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예배를 끝내고 사택으로 들어가려는데 자전거를 끌

고 한 신사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분은 이웃 마을 사시는 집사님이신데 새벽 예배 시간에 환상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환상에 이동네 십자가가 보였고 쌀통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보여주신 것으로 알고 쌀을 자전거에 싣고 오신 것입니다. 목회 초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 시절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함이며 뜨거운 감동으로 가슴이 뭉클합니다. 지난 주 자녀의 학비를 위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한 목사의담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어떤 인간적인 계획이나 욕심도 없이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전하게 목회했던 초년 시절을 되새기며 겸허한 마음으로 신앙의 옷깃을 여며 봅니다.

# 푸 / 른 / 초 / 장

오세훈 목사  
(교회)



위로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더 큰 것을 주겠다는 명령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날을 생각하며 현실이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맞이하려고 기다리는 삶이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37절).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이다" 하였습니다. 또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은 정신으로 내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딤후2:26과 같이 마귀의 울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며, 마26:41절과 같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사단이 조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는 머(뮌)니머(뮌)니해도 '머니'라고 황금만능주의를 따라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함락제일 주의에 빠져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이 이용하는 신앙 타락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을 잘 섬겨야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동물 중에서 제일 겸손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동물이 무엇입니까? 저는 소라고 생각합니다. 소는 하루 종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합니다. 때로는 짐을 지우고 가도 앞만 보고 묵묵히 걸어가며 밭을 갈 때는 무거운 쟁기를 메고 시키는 대로 그것이 비록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지 언정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살았을 때는 일단 하다가 죽어서도 가족은 튼튼한 가방이나 옷을 만들고, 고기는 각 부분대로 나누어져, 불고기, 갈비, 설농탕, 국밥, 우육으로 제공이 됩니다. 내장은 간, 혀, 곱창으로 구분되어 어느 한 부분도 버리지 않고 심지어는 빨가지 장식용으로 사용됩니다. 소고기는 톱조림으로 담아놓고 오래도록 먹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식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와 같이 현재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하여도 소처럼 불평하지 말고 그때마다 나는 소같이 일하는 성도 소처럼 인내하는 성도, 겸손하고 충성하는 소처럼 희생하는 알찬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성이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고 헌신하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는 충성을 하려면 허리에 띠를 띠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10면으로 계속)

# 허리에 띠를 띠 사람 (눅12:35-40)

교회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참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민음의 생활을 하다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욱 부지런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욱 깨끗이 살아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하고 싶은 것을 참으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잘 살아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이민 와서 살다보면 언어에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고 위로해주시길 믿고 기에 우리는 현실의 고난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무게야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못하게 하였으리라" 하셨습니다. 도적을 지키려는 사람이나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은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성공은 잠자는 사람들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삿 16:39절에 삼손은 들리라의 무릎은 베고 자다가 머리를 깎여 힘을 잃어 비참하게 되어 죽었습니다. "잠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아 좀더 눕자 하는 자들은 빈궁과 곤핍을 강도를 만나듯 만나게 될 것이라"(잠24:33) 고 하였습니다.

마13:25에 좋은 씨를 뿌린 밭에 농부들이 자는 사이에 열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전15:34절 말씀과 같이 신앙의 잠을 자지 말고 깨어 맑

3.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충성스럽게 일하라는 것입니다(38절).

본문 38절에 "주인이 혹 이경이나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이다" 하였습니다.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이란 주인이 명령한 것을 충성되게 일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며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과의 나와 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 의 관계는 먼저 예배부터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39회 총회 소집 공고 및 등록안내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39th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총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39회 총회에 참석하시는 총대를 위한 호텔예약일정과 등록에 관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총회일시: **주후 2015년 5월 19(화) - 5월 22(금)** / 3박 4일
- 2. 장 소: **Viale Hotel (Iguazu Airport, Brazil)** <http://www.vialehotels.com.br>  
Av. das Cataratas, 2420. Foz do Iguacu Parana Brazil Phone: 55-45-2105-7200
- 3. 등록비: 총회기간의 숙식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는 미화 USD입니다).

객실구분	등록마감일 및 참가비		
	1차(2월 1일까지)	2차(3월 1일까지)	3차(4월 1일까지)
2인1실(1인당)	\$ 390	\$ 440	\$ 465
1인1실	\$ 750	\$ 800	\$ 825
부부	\$ 750	\$ 800	\$ 825

\* 이곳 물가 사정상 지원금 사정이 미약함을 양해바랍니다.

- 1) 개인숙식: 개인적으로 숙식을 정하시고 총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등록비 \$ 130 를 납부하셔야하며, 호텔에서 식사하실 경우에는 식비 \$ 170를 납부하시거나 식권을 구매하여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 2) 총회에 하루 일찍 오실 분이나 폐회 후 하루 늦게 가실 분들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4. 등록 및 송금안내: 송금은 미국 은행의 수표 혹은 Money order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표의 Memo란에 반드시 참가하시는 분의 성함을 기재하셔서 등록서와 함께 우송해주시기바랍니다.

\* Payable to : Rev. Jung Yon Jung  
\* 보낼 주소 : Rev. Jung Yon Jung (112 Polo Dr, North Wales, PA 19454 USA)

- 5. 교통안내:
  - 1) 총회장소인 Viale Hotel에 오시기 위해서 총대분들께서는 반드시 브라질 이과수 국제공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공항은 차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2) 공항 셔틀버스를 별도 계약해서 30분 간격으로 운영하오니 이용바랍니다. (셔틀버스 이름 : 추후공지)  
전화문의: Viale Hotel (55-45-2105-7200), 김진원 목사 (54911)6757-7649
- 6. 접수: 총회 첫날 접수는 오후 2:00부터, 저녁식사는 오후 5:00부터, 그리고 개회예배는 오후 7:00에 드립니다.
  - 1) 등록마감일(4월 1일) 이후 신청시 호텔숙박은 준비위원회에서 보장해 드릴 수 없습니다.
  - 2) 등록하신 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호텔과의 계약상 등록비 환불은 안 됩니다.
- 7. 기타:
  - 1) 기타 문의사항이나 도움을 청하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등록: 백진국 목사 (5959)8242-0023 총무: 박성훈 목사 (54911)6051-6832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정관일목사 서기 최동진목사 총회준비위원장 왕익상 목사 김지문목사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는 종교의 자유religious liberty와 성애의 자유erotic liberty와의 전쟁터가 되었다. 이 전쟁에서 성애의 자유는 힘을 얻고, 반면에 종교의 자유는 점점 약화되고 있다. 애틀랜타 시로부터 시작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적용에 대한 논쟁에서 우리는 '성애의 자유의 확산을 볼 수 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1월에 조지아주 애틀랜타 소방대장을 해고시킨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룬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글을 올라왔다. 그들의 주장은 종교의 자유를 반대하지는 않는데, 단지 공공의 결과

의 차별금지 정책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바로 성애의 자유erotic liberty가 종교의 자유에 싸움을 거는 전초전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더 많은 사회적 공공장소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Albert Mohler는 이 사건에 대하여 "자유는 진공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어느 역사적인 순간이든지, 어떤 자유든지, 한 자유는 다른 자유와 부딪히게 된다. 우리는 지금 종교적 자유와 그리고 성애의 자유의 충돌을 보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미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보호하는 가

자유로 대처하는 것이다. 물론 종교의 자유는 예배의 자유를 포함한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예배의 자유에 멈추지 않는다. 거기에 멈추어서도 안된다. 동성애 옹호자인 Bruni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너무 많다고 주장한다. 그는 탄식하기를 "사람을 고용하고 해직하는데 교회가 갖는 차별법에 대한 '사역적 예외'에 대한 해석이 너무 광범위하고,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다. 그는 교회가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사역자를 그 사람이 가진 성적인 취향이나 행동, 즉 동성애자라는 것 때문에 해고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공격하는 사람들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해고하면서,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보호해야 한다는 균형 잡히지 않는 염치없는 주장이다. 이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전쟁의 최전선이 바로 우리들의 교회 앞이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종교의 자유'와 '성애의 자유'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텍사스의 Cecil Bell의원이 강력한 반동성애법을 추진했다. 만약에 지

에 바비인형 같은 모델들이 많이 생겼다. 이제는 국민들마저도 실현 불가능한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될 바비인형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너무 다른 날씬한 모델들이 등장하고 사람들도 실현이 불가능한 비정상적인 미를 추구함으로 국민 건강과 정서에 해를 미친다는 판단들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광고나 패션모델들의 체중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채용할 수 없는 법까지 생겼다.

지난해 8월 미국의 유명 팝가수 비욘세가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페미니스트FEMINIST라는 글씨와 함께 등장한 모습은 극단의 논쟁을 일으켰다. 흑인 페미니스트학자 벨 훅스는 "비욘세는 테러리스트이자 안티페미니스트이다. 자신을 성적으로 표현하는 상업화는 여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예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미국 퍼듀대학 록산 게이교수는 "여성 스스로가 성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하고 싶다면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 '종교의 자유'와 '성애의 자유'의 전쟁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를 가져오는 것과 거리가 먼 강단과 집과 사람들의 마음에 제한되는 종교의 자유는 좋다는 것이다.

이 논쟁은 애틀랜타의 소방대 구조팀의 주장이었던 Kevin Cochran이 해고당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가 해고당한 이유는 그의 생각과 관점이 소방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 일의 발단은 Cochran이 책을 썼는데 그는 성경을 인용해서 '동성애가 죄'라고 주장했다.

이야기의 핵심은 시장의 관점이었다. 애틀랜타 시장 Reed는 "Cochran의 개인적인 종교적 신앙은 이슈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애틀랜타 차별금지 정책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이 해고한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소방대장으로서의 Cochran의 봉사 능력은 존경하지만 그의 행동과 결정은 그가 거대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직장을 제대로 통솔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Cochran이 해고당한 것은 정확히 말하면 Cochran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종교적 신앙' 때문이었다. 그가 가진 신앙이 그의 직무수행에 동성애를 행하거나 선호하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Cochran이 낸 책의 제목은 Who Told You that You Were Naked?이었다.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그는 동성애가 성경이 정의하는 것처럼 '역겹고, 저속하고, 부적절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시장인 Reed는 이러한 Cochran의 행동이 시

중 중요한 가치관이다. 이것은 미국의 존재 이후에 계속 인정되어온 국가의 기본이 된 자유이다. 그런데 성애의 자유는 이제 새롭게 등장한 자유이다. 하지만, 동성애가 주도하는 전쟁은 동성애의 보호와 인정이 바로 그들의 도덕적 사업계획의 핵심이다. 물론 그들은 성의 자유를 강조한다. 문제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자유인 '종교의 자유'보다도 '성애의 자유'가 더 근본적인 자유라고 인정 받아야 하는 추세이다. 동성애의 자유의 논리는 이제 법대들에서, 학교들, 유행하는 문화 속으로, 이제 공공정책에, 심지어는 대법원 판결에도 먹혀 들어가고 있다.

사건의 내용은 Cochran이 자신의 책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3명의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주었다. 그 결과는 Reed시장에 의하여 해고를 당한 것이다. 그의 해고의 소식은 공개적으로 동성애 칼럼리스트로 알려진 Frank Bruni에 의하여 기사화 되었다. 그는 Your God and My Dignity 라는 논쟁을 벌이면서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종교적 자유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교적 자유를 종교적 예배나 교회, 회당이나 모스크에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밖에서 떠돌지 말고 집안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정치인들이나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점점 더 많은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말하면서 단순히 예배의 자유로 제한하는 추세이다. 종교의 자유를 예배의

역 공무원이 동성애 결혼증서를 발급하면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발안했다. 2005년에 텍사스 주민투표는 동성애 결혼을 금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연방법원이 2014년에 취소시켰다. 또한 결혼증서를 보호하는 법안들도 발의되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유타 주에서는 결혼증서가 자신의 신앙과 맞지 않는 동성애 결혼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법안을 채택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새로운 '성의 자유, 성애의 자유'가 미국 헌법의 가장 근본적인 자유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식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잠깐 일어나는 일식이 아니라 영구히 고정화 될 수 있는 위험이 많다는 것이다.

사실은 전세계가 전쟁터이다. 한국도 성의 자유가 붕괴처럼 터진 것 같다. 최근 한국에서는 그동안에도 유명 무실했던 간통법이 폐지되었다. 한국인의 성의 자유와 성의 문화가 온 사회를 뒤덮고 있다. 사회적인 통계를 보면 충격적이다. 한국인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일들이 많으면서 성과 관계된 다양한 사회적인 논란이 이면 지역사회의 이슈로 자주 떠오르고 있다. 유럽은 성의 자유와 성애의 자유를 선언한 지 오래이다. 심지어는 스웨덴에서는 마루바닥을 유리로 까는 것을 허용하는 법도 생겼다고 한다.

또한 성의 자유하는 왜곡된 아름다움의 정의를 양산한다. 바비인형 덕택

신자유주의 시대의 성은 성을 강조하는 소비문화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문화는 여성의 몸에서 성적 측면을 부각시킨다. 섹시하다는 표현이 아름답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현상도 같은 맥락이다. 외모지상주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성의 상품화를 촉진시키는 주요인이다. 외모지상주의는 심각한 수준이다.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선하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신조어 '착한 몸매', '착한 얼굴'이라는 용어부터 사회적 왜곡현상을 보여준다.

성경은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다고 하신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이사야(사13:19),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의 예로 들었다(렘23:14). 특별히, 유다서 1:7은 의미심장하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종교의 자유와 성애의 자유에서 종교의 자유가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멸망으로 치달아 내려가는 이 세대의 광란의 폭주를 막을 길이 무엇일까?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주실 부흥의 역사를 갈망한다.

이메일:revdavidkim@yahoo.com

###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E-Mail: t1spc0316@gmail.com

**Q:** 저는 결혼 생활 20년째 되는 여 집사입니다. 제 남편과 저는 착실하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서로 개성이 강해서 그런지 대화를 하다보면 말다툼으로 끝나고 서로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다른 가정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가든그로브에서 집사

**A:** 이것은 집사님 가정만이 아니라 많은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밖으로 표현을 안해서 그렇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부부생활의 문제는 다 비슷합니다.

벨기에의 극작가인 마테 블링크의 동요곡에 나오는 '파랑새'가 있습니다. 이 파랑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추구하고 쫓아다니는 파랑새입니다. 털털과 마틸 남매는 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 "기억의 나라, 밤의 나라, 숲

### 행복은 '지금 여기에'... 남편에게 온유한 말과 태도 가져야

의 나라, 미래의 나라를 차례차례 순례하면서 파랑새를 찾아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모험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파랑새는 찾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 자기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돌아와 자기 집 처마 밑의 새장 안 비둘기를 자세히 보니 자기가 그렇게 찾아다녔던 그 파랑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떠날 때는 몰랐는데 돌아와보니 자기 집 새가 파랗게 변해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 내가 찾던 파랑새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이 마테 블링크의 '파랑새'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행복이나 축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진 인간은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남의 아내가 더 예뻐 보이고 남의 남자가 더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가치와 진가를 알지 못하고 쉽게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성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옆의 가족, 가까이 있는 아내, 부족하게 보여도 내 남편의 귀중성을 알고 진정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인생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Here and Now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님, 하나님께 내게 주신 가정과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남편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남편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남편을 경외하고 존경하며 무순하게 대하십시오. 여성의 미는 베드로전서 3장처럼 남편에게 온유한말과 태도를 가지는 것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주님처럼 경외하고 늘 따지는 태도나 거칠게 대화하지 말고 온유하고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대화란 항상 상대적입니다. 한 편이 따지듯이 거칠게 나오면 상대방도 거칠어지는 법입니다. 모든 것을 남편에게 돌리지 말고 내 자신에게서 문제점을 찾도록 해보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참석해서 부부가 은혜 받는데 힘쓰십시오. 내가 늘 참으면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날짜** 2015년 5월 1일(금) ~ 12일(화)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문의** 213.382.1450  
**장소**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한인타운 내 카타리나와 8가 코너에 있습니다

###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gstcenter98@gmail.com

### 방송설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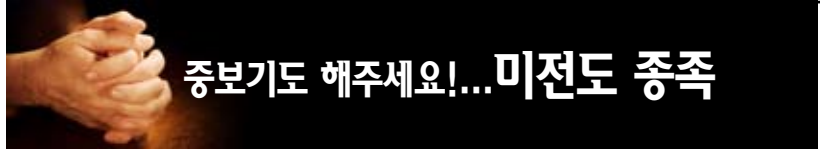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튜브 <http://www.youtube.com/user/cbsolomontv>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차 검색



### 2015년 부흥성회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1~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기도성회 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3일 인천강성교회(이철호목사) 8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준진목사) 11~13일 (협동동인총회) 남부시찰 재부흥회 16일 과천교회(주원신목사) 18일 예복교회(소진우목사) 22~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일 LA 주님의 영명교회(신승훈목사) 2~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12일 GST 신학생총회(34차) 15일 사랑스런교회(배만석목사) 16~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2일 신묘철 철야기도회(GST) 23~25일 동촌교회(윤석호목사) 27일 백석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1~3일 예수비전교회(박정홍목사) 5일 총신대학교 생명수련회(김지연총장) 9~11일 (협동)대백시찰 연합성회 16~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3~26일 갈멜산강화금식기도원(강화) 29일 신묘철 철야기도회(GST)	6~8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13~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0~22일 안산 시민교회(이성관목사) 23일 김본대학교, 대학원 제물 26일 신묘철 철야기도회(GST) 27~29일 화평교회(이재우목사)	1~1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8~2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4~27일 하늘비전교회(노영택목사) 31일 신묘철 철야기도회(GST)	1~4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8~1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15~17일 은양교회(류병희목사) 21일 예우교회(류병희목사) 25~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1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3~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6일 신묘철 철야기도회(GST) 27~29일 천마산기도원(윤석호목사)	3~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9~12일 나사렛성경교단 연합성회 (장소: 나사렛대학교) 17~20일 GST 신학생총회(35차) (장소: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21~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종교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구주르 라자스타니(GUJUR RAJASTHANI)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구주르족의 통합 프 로파일. 구주르족은 3개의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칭하여 "구주르 라자스타니족"이라 알려져 있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인도 북동부의 여러 주 즉 히마찰 주, 마드야 프라데시주, 우타르 프 라데시주, 잠무주, 카슈미르주, 라자스탄주에 살고 있다. 그밖에 서부 인도의 구자라트 지역은 구주르족의 전통적인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여러 이슬람 집단들이 11세기에 인도와 파키스탄을 침략하기 시작하자, 힌두교도인 구주르족은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그러자 그들에게 분개한 이웃 힌두교도들은 봉기를 일으켜 이 지역을 장악했다. 구주르족은 결국 자기들의 땅을 떠나야 했으며 다른 좋은 목초지를 찾아 나섰다. 그들의 방랑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어졌으며 수 천 명이 지금까지 그 곳에 남아있다. 1947년 파키스탄과 인도의 분립이 일어나자 또 많은 종족의 이동이 생겼다. 무슬림들은 파키스탄으로 이주했고, 힌두교도들은 인도로 물러갔다.

3개 구주르족 모두 구주르어를 말하는데, 이는 인도-아리안 어군에 속한다. 이러한 공통요소가 그들이 구별되는 하위 집단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아프가니스탄

의 구주르족은 또 파쉬토어나 다리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페르시아어 계통으로서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75%가 사용한다.

#### 삶의 모습

11세기 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이후 구주르족은 빈곤한 삶과 문맹, 사회적 억압에 직면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순박하며, 비공격적인 사람들로서 관대하고 호의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인도에 살고 있는 구주르족 대부분은 법을 잘 지키는 목자와 농부로서 살아가고 있다. 불행한 것은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보다 높은 카스트의 사람들로부터 홀대를 당하고 있으며 종종 도둑과 방랑자라는 라벨이 붙여진다.

인도 북동부의 산림지역에서 살고 있는 구주르족은 물소를 키운다. 하지만 인도정부는 한 가구가 키울 수 있는 물소의 수와 그들이 산림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에 규제를 가했다. 이는 그들의 주요 수입원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구주르족을 절망에 빠뜨렸다.

이런 이유로 이 유목민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가족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목초지를 찾고 있다.

카슈미르주에 살고 있는 구주르 유목민들은 중간상인들에게 종종 농락을 당하는데, 이들은 구주르의 농산물을 도시 시장으로 운송해 자신들의 것으로 해서 시장에 내다판다.

구주르족의 카스트는 종교적 지리적 경계선을 따라 널리 2개의 집단으로 나뉜다. 하나는 무슬림 구주르이고 또 하나는 힌두 구주르이다. 무슬림들은 계절적인 유목민들로서 정착기 동안 창문도 없고 방 하나뿐인 가옥에서 거주한다. 한편 힌두교도들은 1년 내내 같은 장소에서 사는 정착농들이다.

아프가니스탄의 구주르족 대부분은 짐시들로서 땀자, 방랑연주자, 무역상, 점쟁이 같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간다. 많은 이들이 지극히 가난한 생활을 하고, 구걸이나 범죄에 빠지기도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여름철 동안 동부의 계곡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목 염소사육자들이다. 불행히도 몇년전의 아

프가니스탄과 러시아 사이의 분쟁이 농사와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제를 파탄시키기도 했다.

산림지역에서 사는 구주르족은 대개 산림 주변의 개척지에서 집을 짓고 산다. 가족은 1-3개의 방을 가지고 있으며, 평평한 지붕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카슈미르에서 사는 사람들의 집은 전형적으로 모가 난 지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집안의 가리막이 없는 화로에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집안이 대개 어둡고 연기가 자욱하다.

구주르족은 수백개의 씨족으로 나뉘지는 부계사회로 유산은 아들에게 물려진다. 결혼은 대개 부모간 중매로 하며, 신부 값으로 현금이나 물소가 신부 가족에게 지불된다. 씨족 외부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도 허용되며, 젊은 부부는 일반적으로 시가 근처에서 산다.

#### 신앙

구주르족 대다수는 무슬림이지만 약30%에 달하는 힌두교도들은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구주르족은 대부분 코란을 갖고 있지만

가족신상을 숭배하며 "홀리(Holi)"와 같은 전통적인 힌두교 축제를 지킨다.

무슬림인 구주르족은 힌두교 관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무슬림들에게는 대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두교에 대한 공동전선을 형성하고자 하는 바램 때문에 카슈미르의 무슬림들은 최근 카슈미르에 들어온 구주르인 무슬림 유목민들을 받아들이는데 동의했다.

#### 필요로 하는 것들

구주르족은 성경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구주르어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는 없다. 따라서 그들을 위해 문자를 개발하거나 지역 언어 중 하나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아마도 이는 기독교 교사들이 구주르족 가운데 거주하며 그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될 것이다.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클린턴 "동성결혼 헌법상 권리 보장해야"

미국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15일 동성결혼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



힐러리 대선 캠프는 이날 성명을 내고 "클린턴 전 장관은 결혼의 평등을 지지하며, 연방 대법원이 동성 커플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편에 서기를 바란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재 각 주 별로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동성결혼을 헌법에 근거한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동성결혼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이었던 기존의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2008년 대선 경선 당시 동성결혼에는 반대하지만 '시민결합'(Civil Union)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2013년 동성결혼 지지 의사를 밝혔을 때도 법제화 여부는 각 주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 12일 발표한 출마 선언 영상에서 동성커플을 등장시킨 바 있다.

#### "북한, 김동식 목사 가족에 3억3천만불 배상" 판결

미국 법원이 2001년 북한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 끝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유족에게 북한은 3억3000만 달러(한화 3615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 목사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이스라엘 민간단체 슈타 하딘의 닷사나 다르산-라이트너 대표는 15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 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판결 내용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르산-라이트너 대표는 "법원이 김 목사 사망에 북한 정부가 책임이 없다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며 배상금을 산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목사의 아들과 형에게 심리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으로 각각 1500만 달러, 징벌적 피해보상금으로 3억 달러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유해를 보내주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김 목사의 죽음에 북한 당국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북한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김 목사가 고문을 당하고 사망에 이른 데 대해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데이비드 테이틀 판사는 "김 목사의 납치와 사망이 모두 북한 소행"이라며 "김씨 가족이 제출한 증거로 봐 북한 공작원들이 김 목사를 납치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10년 가까이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의 인권보호와 선교활동을 해왔으며 2000년 북한 공작원

들에게 납치돼 이듬해 북한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 끝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슬람교도, 기독교인 12명 바다 던져 '충격'

지중해를 떠돌던 아프리카 난민선에서 '종교 싸움'이 발생했다. 다수의 이슬람교도들이 기독교인 12명을 바다에 던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탈리아 경찰은 지중해를 건너던 도중 기독교를 믿는 12명의 난민을 바다에 던진 혐의로 15명의 이슬람교도 난민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이탈리아 경찰 조사 결과 지난 14일 리비아 해안에서 105명을 태우고 출발한 선박에서 난민 대부분이 세네갈과 코트디부아르 출신인 가운데 이들 15명이 소수인 나이지리아와 가나 난민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계속 살해 위협을 했으며 결국 종교적 이유로 싸움이 일어나 12명의 기독교인이 바다에 던졌다고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가 전했다.

이탈리아 경찰은 세네갈, 기니비사우, 코트디부아르, 말리 등 출신으로 밝혀진 이들 15명의 이슬람교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이같은 증언을 한 생존자들은 이슬람교도 난민들이 자신을 마쳐 바다에 버리려고 하자 격렬하게 저항했고 인간 사슬까지 만들면서 위기를 모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명의 기독교도 난민이 살해된 다음 바다에 던졌는지 산 채로 버려졌는지는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탈리아 경찰은 이날 아침 이탈리아 해군 함정을 타고 시칠리아 트라파니 항구에 상륙한 4명의 구조된 난민들이 자신들이 뒀던 고무보트가 전복되면서 함께 타고 있던 다른 난민 41명이 실종됐다고 진술해 희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뉴스통신인 안사는 보도했다.

한편, 아프리카를 떠나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밀입국하려는 난민들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사망 등 희생자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은 유엔의 자료를 인용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이주를 시도하다 지중해에서 사망한 난민이 500여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17만명이 지중해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해 3400명이 사망했다.

대부분 전복 사고 등 해상 조난으로 인한 희생이지만 이처럼 난민 사이에 종교 갈등으로 인한 피해도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은 올해부터 지중해에서 새로운 '인류의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오려던 난민이 대규모로 사망하는 참사가 잇따르면서 인권단체들이 유럽연합(EU)의 '무대행'을 비난하고 나섰다.

국제 엠네스티(AI)는 올해 들어 지중해에서 희생되는 난민이 급증한 것은 EU 당국과 EU 회원국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비난했다고 EU 전문매체 유렉티브가 16일 보도했다. 엠네스티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EU는 현재의 수색 및 구조 작업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라며 EU의 소극적인 난민 대책을 질책했다.

휴먼라이트워치(HRW)도 "EU가 난민 구조 작전을 지원하지 않으면 희생자 숫자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반동성에 성구 새긴 케이크 제작 거부 제과점...

아주카베이커리 페이스 북 캠프동성애에 반대하는 성경문구를 새긴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지만 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콜로라도 주의 한 제과점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에 쓰일 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다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이나 영업 정지 처벌을 받는 제과점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테버 시의 아주카베이커리는 지난달 기독교 보수주의 운동가인 빌 잰으로부터 동성애를 죄로 명시한 성경 문구를 새긴 케이크를 제작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시 당국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잭은 앞서 테버 시에서 또 다른 기독교 제과점인 마스터피스케이크숍 동성결혼식 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의미에서 이 같은 케이크 제작을 계획했다.

그는 "마스터피스케이크숍의 운영자는 자신의 신앙을 기반으로 동성결혼식에 쓸 케이크를 만들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이유로 기소를 당했다. 그런 반면 성경 구절이 적힌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한 기독교인 고객의 주문을 거절한 제과점의 운영자는 어떤 제재도 당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콜로라도 시 당국은 많은 기독교 사업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왔고, 이들의 신앙 양심이 허용하지 않는 행사들에 참여하도록 강요해 왔다"며 "시 당국의 위선과 불평등한 법 적용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잭은 또 아주카베이커리측이 처음 잰이 새겨 달라고 한 문구가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혐오한다'였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는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내가 주문한 케이크는 열려 있는 성경책 모양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신다'는 시편 45장 7절 말씀과 '동성애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죄악'이라는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케이크를 두 개를 주문했으며, 두 번째 케이크에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라는 문구를 새겨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2012년 동성결혼식 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뒤 기소당한 마스터피스케이크숍의 운영자인 잰 필립스는 당시 주문한 동성애자 커플에게 다른 제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결혼식에 쓸 케이크는 판매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후 소송을 당했다. 콜로라도 시 당국은 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이 제과점의 혐의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 "기독교도 30명 집단 살해한 IS 야만성 드러내"

미국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리비아에서 에티오피아 기독교도도 추종되는 인질 30명을 살해한 데 대해 '잔혹한 집단 살해'라며 맹비난했다.



IS는 19일 리비아 사막과 해안가에서 각각 10여명의 인질을 총살하거나 참수하면서 '에티오피아 기독교도'라고 밝힌 29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비탄에 미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IS 연계 테러리스트들이 리비아에서 에티오피아 기독교도를 잔혹하게 집단 살해한 것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잔혹 행위는 리비아가 하루빨리 정치적 안정을 찾아 테러 단체를 몰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미한 대변인은 또 "종교적 이유로 살해한 것은 그들의 잔인함과 무의미한 야만성을 드러낸다"며 "모든 신앙인은 테러리스트의 만행에 맞서 함께 할 것이며 미국도 그들의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레드와 후세인 에티오피아 정부 대변인은 "이집트의 에티오피아 대사관이 영상 속 피해 인질이 실제 에티오피아인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피해 인질이 에티오피아 인이든 아니든 IS의 극악무도한 살해 행위를 강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

#### 예수 수의 '토리노 성의' 공개 인터넷 예약

5년 만에 일반에 다시 공개된 '토리노 성의(聖衣)'가 19일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의 주교좌성당에 전시돼 있다. EPA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진 뒤 부활하기 전까지 시신을 감싼 수의로 알려진 '토리노 성의(聖衣)'가 19일 5년 만에 일반에 다시 공개됐다.



AFP통신 등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가난한 어린이의 교육을 위해 헌신한 성인 요한 보스코 신부(1815-1888년)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성의를 특별전시하라는 칙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토리노 주교좌성당에 보관된 성의는 오는 6월 24일까지 전시된다. 개장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다.

그러나 전시회를 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시회는 무료이지만 웹사이트(www.sindone.org)나 전화로 예약해야 입장할 수 있고 이미 세계 각지에서 100만명 이상이 인터넷 예약을 마쳤기 때문이다.

성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위 논란이 남아 있다. 천의 제작시기가 13-14세기로 추정된다는 탄소연대측정 결과가 나와 예수 시신을 감쌌던 천이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 의혹이 제기됐다. 교황청은 성의에 찍힌 얼굴이 실제 예수의 얼굴인지 등에 대해 공식 언급을 피하면서도 소중한 성물임을 분명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전시회 기간 중인 6월 20~21일 직접 전시회를 찾은 예정이다.

#### (1면에서 계속)

그녀는 변호사로 활약하거나, 대통령영부인, 상원의원 그리고 국무장관으로 있으면서도 한결 같은 "사회 정의에 강조를 두는 전통적인 감리교인"이었다고 동 뉴스 서비스는 전해준다.

1.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감리교인이었다. 어렸을 때, 그녀는 일리노이, 파크리지 제일감리교회 강단을 청소하는 의무를 가진 감리교인으로 자라났다. 십대에는 담당 사역자이자 2009년 소천하기까지 그녀의 멘토인 돈 존스 목사와 함께 시카고 도심 사역을 했다. 백악관에 영부인으로 임성했을 당시에도 온 가족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곳이 감리교회(Washington's Foundry United Methodist Church)였을 정도이다. 2. 성경을 항상 지갑에 가지고 다닐 정도이지만 믿음을 "선전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못하다.

감리교 신자로서의 유익은 뉴욕 주 상원에 당선했을 당시에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신앙대신 "도덕적 책임성"이라고 우회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들려 말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에게 왜 고난이나 고통을 주는가에 대한 질문에, 신정론이라는 신학적 대답대신, "무엇인가 행동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

따라서 그녀에게 신앙은 바로 "의미의 새로운 정치"다. 1993년 텍사스 대학 연설에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의미의 정치가 요구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믿고 있는 것을 불러 일으켜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맞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3. 기도하는 사람이다. 신앙 포럼에서 때때로 그녀는 자신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유머를 통해 드러냈다. 예를 들

어, "하나님 왜 살아 안 빠지죠?"라고 물을 정도로 기도는 세상을 분별하고,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는 일상의 습관이라는 점을 밝혔다.

4. 하나님-정치를 실제로 정치 현장에서 구체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

2008년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패배하자, 그녀는 감정적으로 자신의 심경을 "충 아나니 하나님"에게 맡길 정도로 토로했다. 그리고 CNN 주최 포럼에서 민주당이 많은 미국인들의 삶의 가치이자 방향인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고백했다. 신앙은 바로 사람들에게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정치적 성향 때문에 무시하는 것을 힘들어 했다.

5. 작년 4월, 연례여성감리교인 총회에서 신앙의 연대성을 말했다

크리스천들이 같이 나누는 신앙의 힘이 바로 바로 그

녀를 아이들과 가정의 대변자가 되게 했고, 지구상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무시되며, 박해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싸울 수가 있었다고 그녀는 고백한다. 변호사로서 가정법 전문 변호사로, 국무장관으로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국무장관 시절 112개국 방문과 여행거리 153만9712km로 신기록을 세웠다. 자신이 행한 인도주의적 행동들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다.

결론으로, 이제 2016년 대선 마감까지 미국 대선은 시작되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향후 미국을 가동시킬 새로운 힘이 이제는 어떠한 이념이나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도할 때다!





#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15)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 1. 초대교회 - 교회의 확장 (2)

활발한 복음전파와 함께 교회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기독교는 유럽을 정복하였다. 그 후로 복음을 통과하여 지금은 동남아로 퍼져가고 있다. 십자가 복음의 막강한 운동력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섬겨왔다. 신자들의 영적 성숙과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항상 순조롭지만 않았다. 수많은 문제와 씨름하였다. 지상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질문: 초대교회의 확장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의 핵심과 해결책을 알고 있는가?

### 1) 교회역사를 보면...

#### ■ 예루살렘 교회

엄격히 말하자면 기독교는 전혀 새로운 종교가 아니었다. 유대교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이다. 초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순절과 교회의 탄생을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믿었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다. 초기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주된 활동지였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

체가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성장하였다.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께서 맡기신 복음전파에 최선을 다하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였다(행 2:46-47).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언뜻 보기에는 사소한 일로 보였으나, 향후 이방인들을 향해 교회가 확장되면서 대두되었던 심각한

자들이 하나가 되어 한 지방 아래에서 지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 ■ 율법과 복음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바울은 모두 한 마음으로 복음전파에 힘을 쏟았다. 초대교회의 기동과 같은 인물들이다. 그러나 세 사람은 복음의 강조점을 조금씩 달리 이해하였다. 그 차이점은 당시 유대개종자와 이방 개종자 사이에 생

신의 강조점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관한 조건으로서 복음의 절대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는 초기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문제로 부상되었다.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성도들은 율법에 대하여 호의적이었다. 가끔적인 자신들에게 신앙을 물려준 조상들의 신앙을 계승하고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회의 교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에

육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다.

#### ■ 예루살렘 공회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었듯이, 예루살렘에서 역사상 첫 번째 공의회가 소집되었다. 그 당시 유대개종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던 사도들과 이방인들을 향해 선교를 담당하던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그들은 교회의 확장과 함께 생겨난 문제를 신중하게 다

포함되어 있다. 놀라운 것은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모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교회의 확장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문제와 해결책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복음을 전달받아도 전혀 다른 상황과 전통으로 인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복음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상호 존중'을 통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물론 성경의 정경이 이루어진 현재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 ■ 성경이 보인다 - 사도행전 15:1-21, 갈라디아서 2:11-14

베드로와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인 후에 크게 다투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던 도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을 의식하여 그 자리를 피한 것이다. 이방인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율법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 장 시간의 토론과 공의회를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쉽게 바꾸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 중심'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의 신앙을 고집한다면 같은 사리를 지킬 수 없다. 교회의 생명이 무엇인가? 은혜의 복음을 지키는 것이다. 모든 신자들의 성격과 생각은 자라온 배경과 사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강조점의 차이'와 '근본적인 차이'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신앙은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그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신학적, 신앙적, 성경적, 그리고 실천적 고민이 생길 수 있다. 개인과 교회 공동체는 이 부딪음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메일: covenantcho@yahoo.com

##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 초대교회 최대 신학적 문제 부상 성경의 원칙 안에서 '상호 존중' 통한 해결책 찾아야

한 신학적 문제를 예견할 수 있던 문제였다.

주전 6세기경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다. 그들은 중동의 언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하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땅을 정복한 후 보급하였던 헬라어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스라엘에서 출생한 다수의 히브리교도와 타 지역에서 살다가 돌아온 소수의 헬라교도와 성도로 구성되었다. 동일한 복음을 받아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지만, 헬라교도와 유대교도 사이에 존재하는 일로 인하여 그들 사이의 갈등이 표출되었다. 마치 이민교회의 언어권과 영어권 사이의 갈등이 언어의 문제 이상인듯이 다른 문화와 풍습, 나아가서 다른 사상을 지닌

겨난 신학적 문제와 연관이 있다.

야고보는 율법과 복음을 분명히 구분할 뿐 아니라, 율법주의를 철저히 배격한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를 요구한다. 마치 그가 행위에 의한 칭의 교리를 주장하는 듯 오해받을 정도이다. 반면에 바울은 야고보와 정반대로 조건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며 복음을 설명하였다. 예수께서 이루신 새 언약은 완전하고 흠이 없기에,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역설하였다. 베드로는 바울과 같이 은혜의 절대성을 믿었다. 그러나 그의 심중에는 유대교적인 사상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기에 율법적인 행위도 중시하였다. 이와 같이 이들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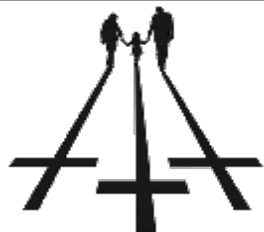
대한 믿음과 함께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 자들의 주장이 큰 힘을 발휘하였다. 심지어 이 단이었던 예미온주의자들은 예수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율법을 완성시키기의 위하여 온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믿었다.

진정한 문제는 유대교에 뿌리를 둔 기독교가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면서 할례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할례가 과연 교인의 조건이 받아들이는 조건이 될 수 있는지는 것이 주된 관건이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단호히 오직 복음을 주장하였지만, 혼란스런 틈을 타서 거짓 교사가 나타나 행위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더

뚱뚱으로서 연합된 교회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길 원했다. 이 모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할례의 문제였다. 앞의 글과 연결해 보자면, 유대교 성도와 헬라교 성도의 심화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결론은 '상호 존중'이란 정신에 의해 이루어졌다. 신중한 토의를 마친 후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분명하게 결정하였다. 모세의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거짓 가르침을 공식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동시에 이방인들은 유대개종자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부탁하였는데, 이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는 것이

## 가정사역 칼럼



###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와 사회를 만든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인의 이혼율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1997년 IMF 이후부터 한국의 이혼율이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통계

에 의하면, 2002년 한국인의 이혼율은 47.4%로 1990년의 11.4%에 비해 4배나 높아졌으며, 조이혼율은 3.0으로 OECD회원국 중 미국(4.0%) 다음으로 높았다(한울섬, 한국일보 2004.2.7.). 결혼보다는 동거를 많이 하는 서구인들과 한국

인의 이혼율을 비교할 때는 무리가 있을 수도, 통계치는 서구인들이 무색할 정도로 한국인들의 이혼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있다.

한편으로 2006년 3월에 발표된 통계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전

까지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리던 이혼자수가 2005년도에는 128,486쌍으로 전년(2004년)의 139,365쌍에 비해 7.8%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감소현상이 2003년 이후 2년째 지속되는 것이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으나, 이혼율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혼율의 감소가 반드시 부부갈등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 이혼과 연관된 사회적 현실

찰스 셸은 "교회가 가정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 사실은 교회 자신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론 로스의 말

을 인용하면서 "가정이 그러하면 교회도 그러하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가정의 문제들은 어떤 형태로든 교회에 파급효과를 미쳐서 건강을 보였는데, 이러한 건강한 교회 만들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정의 문제를 짚어볼 때 우리의 현실은 심각하다. 이혼과 재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점점 더 일반화되어가고 있기에 이 시점에서 교회 안에서의 별거 및 이혼에서의 회복 사역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갖는 일은 중요하다.

우리의 가정은 대체로 부부가 함께하는 가정, 부모 자녀가 함께하는 가정, 한부모(혹은 편부모)가정, 한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정, 독신가정 Never Married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각 가정별 사역의 필요가 다양함에도 지금까지는 부부가 함께하는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따라서 그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왔고, 관련연구나 저술 등도 상당한 진척을 보였다. 하지만 사별이나 이혼으로 말미암은 한부모 가정을 위한 사역이나 사역자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부모 가정을 위한 가정사역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개인과 교회, 사회가 보다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에는 이혼 과정의 단계에 대해 나누려고 한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 하나님의 구원계획 GPS CENTER 센타



저자 라흥채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P.O.Box 610178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판매)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	\$100	유럽 .....	\$190
	캐나다 .....	\$110	남미 .....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아프리카 .....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회중을 예배에 몰입하게 하라!

## CT, '찬양 인도자, 공연 유혹에 빠져들지 않기' 전문가 3인의 조언 소개 (상)

찬양인도자의 목적이자, 가장 큰 '유혹'이며 '성취감'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는, '회중이 예배에 몰입하는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 음악적인 것인데, 예배 전의 강력한(?) 기도이든, 심지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배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일단 찬양인도자의 자리에 서면 그 목적을 의식하지 않기로 한다. 그렇지 않았다 해도 예배를 마친 후의 사람들의 반응이 의식되기 마련이고, 앞서 언급한 자신의 방법론대로 예배에 임했는지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교만했음을 회개하기도 하고 반대로 겸손하게 잘 예배한 자신을 보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떤 방법론을 취했는지 따지기 힘든 생각은, '자신의 노력이 회중을 예배

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은연중에 드는 착각, 그것이다. 따라서 찬양 인도자가 아닌 공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에는 실제로 찬양을 인도하거나 신학교에서 교회 음악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의견을 통해, 찬양 인도자가 공연 유혹에 빠지지 않는 제언을 하고 있다(Can Worship Leaders and Musicians Resist the Temptation to 'Perform'? Three views on how to keep church services from becoming like American Idol).

경청하고, 신뢰하고, 개선하라

최근에 나는 지금까지 내가 본 공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연을 보았다. 그 콘서트의 주연은 브라질 상파울루 출신의 기타리스트와 피아니스트가 맡았는데, 그 무대는 그 두 사람의 첫 듀오 공연이었다.

매우 우수한 작곡자요 연기자며 즉흥 연주자인 두 뮤지션은 서로 상대의 연주를 세심하게 듣고 깊이 호응하는 연주를 하면서 마치 한 시간의 기도 같은 느낌을 관객들이 갖게 했다.



Norwich)이 했던 말의 의미를 오히려 신뢰해야 한다.

재즈 뮤지션들은 자신들이 다음에 무엇을 연주해야 할지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환경을 알고 있고, 고도로 발달한 음악적 반사 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모여 있는 사람들을 고양시켜 줄 수 있는 소리를 창조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음악 사역자들에게 이상적인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재즈 하모니는 또한 노랫말을 더욱 깊이 있게 해줄 수 있다. 편곡자로서

### 재즈 콤보 멜로디-성령께서 회중 주장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 유도 고도의 음악적 반사 신경으로 회중 고양시킬 소리 창조

그 음악이 주일 아침 예배로 옮겨질 수 있을까? 아마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나를 보라"는 자아도취의 공연이 아니었다. 그때 나는 열린 마음을 보았다. 개인 각자의 연주보다 더 큰 무엇을 창조하려는 열린 마음을 보았다. 그들의 연주를 지켜보는 사람들에 대한 열린 마음을 보았다. 그리고 청중은 열중과 경청의 참여자로서 그들의 연주에 응답했다. 모두가 함께하는 음악이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공연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곤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종종

음악가들과 예술가들에게나 해당하는 말로 치부한다. 그러나 예배(liturgy)라는 말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의미한다면—그리고 우리는, 성공회교인인든 남침례교인인든, 모두 매주 예배를 하고 있다—우리는 모두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공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즉흥연주를 중시하는 재즈를 비롯한 여러 음악 양식들은 살아있는, 숨을 쉬는 교회의 모범을 반영할 수 있다. 재즈 콤보(Jazz Combo)는 개별 부분들보다 큰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해 일하는 공동체의 축소판이다. 각 연주자에게는 솔로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와 반주로 다른 솔로연주자들도 와줄 수 있는 기회가 모두 있다.

이 음악 반주는 사전에 정해 놓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솔리스트가 연주를 하고 있는 것에 호응하면서 일어난다. 이것은 서로의 연주를 경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재즈 연주자인 나는 나 자신의 소리를 찾기 위해서 내 앞에 있었던 대가들을 연구했다.

재즈 콤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주자들이 서로를 신뢰해야 한다. 그들은 다른 앙상블 연주자들을, 그리고 "모두가 잘 되어야 한다"는 노르위치의 줄리안(Julian of

나는 잘 알려져 있는 찬송가 텍스트를 편곡해서 트리오에게 회중 찬송으로 반주하게 한다. 예배 후에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는 곡의 구성과 연주(정말 "연주"라고 말한다)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곡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프닝을 하는 것이 내 일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의 한 지체임을 항상 마음에 새긴다.

디아나 위트코프스키(Deanna Witkowski): 뉴욕 파크에비뉴교회의 음악 사역자

(1면에서 계속)

기브니가 셸리 미스카비지를 영화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관객이 다 큐멘터리를 보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을 가지길 바라셨을 거라고 오르테가는 허핑턴포스트에 이메일을 통해 설명했다. 즉, "사이언톨로지 왜 아직도 세금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지 또 왜 크루즈는 아무 발언을 안 하고 있는지" 말이다.

저널리스트 오르테가는 셸리에 대한 뉴스를 처음 보도하고 자세한 내용을 드러냈으며 그녀의 행방에 대한 추측으로 유명해졌다. 그는 만약에 셸리

를 찾더라도 그녀가 자진해서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 거라고 한다. 오르테가는 "그녀의 이야기를 다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그리고 또 고려해야 할 점은 그녀가 정말로 구출되기 바라느냐는 것. 난 그 부분이 의심스럽다."라고 전했다.

셸리 미스카비지의 행방이 현재로는 미스터리 상태인데, 브루소에 의하면 그녀가 캘리포니아 헤멧에 위치한 교회 소속하의 비밀스러운 '영성 테크놀로지(Spiritual Technology)' 본사에 숨어있다고 오르테가는 보도했다. 사이언톨로지 창립자인 론 허버드의

글을 쇠판에 옮기는 작업을 그녀가 맡고 있다고 오르테가의 정보원이 알렸다고도 한다.

사이언톨로지 교회 대변인 측에서는 지난 화요일에 셸리 미스카비지의 실종은 거짓이라고 이메일로 허핑턴포스트에 입장을 밝혔다. 대변인은 "그녀가 감금되었다는 주장은 음모론일 뿐이다"라고 전했다.

교회측의 성명은 다음과 같이 계속됐다. "허위 사실을 경찰에 제공해 일부러 피해를 주려는 의지와 상관없이 셸리 미스카비지의 행방과 건강은 이미 확증된 바 있다. 미스카비지 부부

에 대한 비방은 악의적이며 전혀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영화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교회측은 또한 로스앤젤레스 경찰(LAPD)이 실종 신고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결정했다고 보도한 로이터통신의 기사를 언급했다.

교회측은 "우리가 기브니 감독에게 셸리에 대한 소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메일을 끝맺었다.

##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시립대학교 교수)

### 부활절을 보내며

부활절은 그리스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성탄절보다 더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된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도 중요한 날이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바울의 말대로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 품에 보낸 사람들에게는 부활절이 주는 소망이 큰 위로가 된다. 만약 죽음의 날을 선택할 수 있다면 부활절 일주일 전에 주님 앞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러면 남은 가족들이 부활절 즈음에 장례식을 치루면서 부활의 믿음으로 마음에 힘을 얻고 슬픔이 덜할 것 같기 때문이다.

부활절 몇 주 전부터 공원묘지인 로즈힐 곳곳에도 먼저 떠난 가족을 위한 백합꽃, 플라스틱 계란, 토끼 등 부활절 장식으로 묘지가 꾸며진다. 올해는 바쁜 일로 남편의 묘지에 부활절 전에 들릴 시간이 없어서 부활절일에 예배를 마치고 로즈힐을 찾았다. 프리웨이 내리면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더니 로즈힐 가까이서부터는 묘지를 찾는 가족들로 트래픽이 광장하였다. 군데군데 차량 통제를 해놓아서 멀리 차를 세워놓고 묘지를 향해 걸어 내려갔다. "아, 그래도 부활절에 묘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니 기독교인들이 꽤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걸어가면서 보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금새 알 수 있었다.

로즈힐 입구부터 줄지어 늘어난 차들은 대부분 부활절을 기뻐하는 기독교인들의 행렬이 아니었다. 마치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이 흥청거리며 파티를 하듯이 부활절의 의미를 전혀 모른 채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명절이라고 묘지를 찾는 것이었다. 곳곳에서 향을 피우는 냄새와 함께 음식을 쌓아놓고 절을 하는 동양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통째 구운 아기 돼지를 로스트 팬에 담아 가지고 제사에 쓰느라 무겁게 어깨에 메고 가는 진풍경도 보였다. 아마 두 사람이나 똑 같은 통돼지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니 주문하면 요리를 해주는 것 같았다. 이는 분 말로는 중국 사람들이 묘지에서 음식을 차려 놓고 제사를 드리는 바람에 남은 음식을 먹으러 저녁이면 로즈힐에 코요테들이 득실거린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묘지에서 종이로 만든 것인지 무슨 집 같은 모형 태우고 있었다. 그렇게 하면 조상이 복을 내린다는 무슨 의식이라고 했다.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꽃장식,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기리는 의식을 보면서 의미 없는 형식이 되어 버린 부활절이 슬프게 느껴졌다. 평소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들도 부활절이면 가족을 따라 교회에 나오는 것도 같은 마음에서가 아닐까? 기독교의 절기 중 중요한 날이니까 그래도 교회에 얼굴 한번 비치고 하나님께 예의를 차린다는 마음 말이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해도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라는 부활절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로즈힐을 내려왔다.

이메일: lpyun@apu.edu

# PRINTING & PROMO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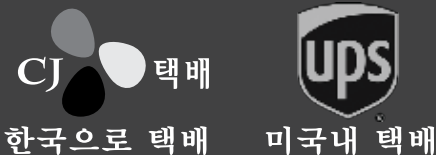
# 프린팅 & 프로모션

BOOKS KOREANA 한국서적  
BOOKS KOREANA, INC  
월~토 : 오전 9:30~오후 8:00

## 각종 인쇄물과 다양한 판촉물 교회 행사에 필수!!



교회/매장/기타단체



### 상담 환영!

교회에서 행사할 때  
수련회 단체 T셔츠  
한글학교 단체복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드립니다.

전화: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이메일 상담과 주문  
bookskorea@gmail.com





목회서신

가장 존귀한 이름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회 담임)

한국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이름값이 달라 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름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명예, 자존심, 생명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이름 가운데 누구 이름이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며 능력 있는 이름일까요? 그 이름은 곧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이 세상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땅 아래 있는 지옥에서도 두려워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이 어떠한가 그렇게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고 능력이 있을까요?

1. 예수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이다.  
세계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대왕의 이름이 권세가 있어서 세계를 다 정복하였으나 슬취함과 방탕한 중에 원숭이 새끼를 가지고 놀다가 손가락이 물려서 33세에 미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원숭이 새끼

한 마리 가지고도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저의 이름도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를 정복하여 대로마제국의 영토를 넓혔지만, 어느 날 그의 친구 브루터스의 칼에 의해서 그 이름이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 모택동, 무솔리니, 히틀러 등도 한때 그 이름의 권세로 세계를 두렵게 했지만 이제는 그 권세를 다 잊어버린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시적인 권세와 능력만을 요구했지만 죽음이 그것을 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망권을 이기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수 천년 내려오면서 그 이름의 권세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2. 예수의 이름은 희생적인 이름이다.  
예수님은 여관방 하나 구하지 못하여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없었으니, 예수님은 머리 돌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부요하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셨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가장 강한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자청하셨고, 희생하

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3. 예수의 이름은 높이 뛰어난 이름이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도다”(빌2:9)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어머니 마리아가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한국처럼 아버지 요셉이 지어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시이저, 나폴레옹, 히틀러, 모택동 등 모두 굉장한 이름들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그들과 정반대입니다. 그 당시 그의 이름은 멸시와 수모를 받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4. 예수의 이름은 구원하는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마1:21)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요1:12)고 했으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4:12)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10:13)고 했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공로와 업적, 그 이외의 어떠한 종교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며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2015 미주한인교단 총회 일제히 개최

4월 6일 하나님의성회 한미총회 시작으로 6월 19일 NCKPC까지

2015년도 미주한인교단 총회가 4월 6일 하나님의성회 한미총회(총회장 김재권 목사)를 시작으로 13일 연합감리교회 한미총회(총회장 이성현 목사), 미주성결교회(총회장 김병곤 목사), 그리고 20일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총회장 정영호 목사)가 차례대로 열렸다. 2015년 상반기에 열리는 각 교단 한인총회는 오는 6월 16일 버지니아에서 열리는 미국장로교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까지다.

6일에 열린 하나님의성회 한미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목회예식서를 자체 출간했다. 이 예식서는 성찬 친례 등 성례식, 각종 임직 예식, 봉헌 예식, 혼인 장례 추모 예식, 창립 생일 헌아 등 기념 예식 등을 다루고 있으며 모범이 될만한 설교 예문도 수록하고 있다.

지난 13일 남가주 워터에 위치한 레디슨 호텔에서 ‘성결교회로 성결케 하라’(빌2:12)라는 주제로 열린 미주성결교회 총회는 조종근 목사(사우스메이선교회)가 총회장에, 황하균 목사(뉴욕소망교회)와 이광천 장로(오레곤선교회)가 부총회장에 선출됐다. 또한 15일 저녁에는 사우스메이선교회에서 목사 안수식도 가져 7명의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13일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에서 ‘함께 만드는 미래, 풍성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연합감리교회 한미총회의 화두는 ‘동성에 문제’였다.

한인총회가 책임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인교회를 지키는 사명’이며 한인총회는 더 이상 ‘동성애 이슈’에 관한 소모적인 찬/반 논쟁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인교회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임을 자각하면서 전체 연합감리교회(UMC)와 교단에 진정한 웨슬리 정신의 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다음은 2015년도 상반기에 열리는 미주한인교단 총회일정이다.

교 단	총회장	일 정	장 소
하나님의성회 한미총회	김재권 목사	4/6-9	(GA)아틀란타 프라미스교회
연합감리교회 한미총회	이성현 목사	4/13-16	(TX)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미주성결교회	김병곤 목사	4/13-17	(CA)Radisson Hotel Whittier, 사우스베이 선교회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정영호 목사	4/20-23	(CA)감사한인교회
C & MA 한인총회	백한영 감독	4/21-24	(GA)아틀란타 하이아트 호텔
PCA한인연합회 총회	민경엽 목사	4/27-30	(CA)나침반교회, 뉴라이프선교회
해외한인장로회(KPCA)	노진걸 목사	5/12-14	(멕시코)칸쿰 Great Parnassus Resorts Hotel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해외총회	정익수 목사	5/18-19	(NJ)주예수사랑교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정관일 목사	5/19-22	(브라질)이과수 Viale Hotel
순복음세계복음총회	이만호 목사	5/27-29	(한국)여의도순복음교회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총회(CKSBCA)	위성교 목사	6/15-18	(CA)산호세 에어포트 가든호텔, 뉴비전교회
미국장로교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	이영길 목사	6/16-19	(VA) Hilton Washington Dulles Airport

제2회 남가주어린이찬양경연대회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주최, 5월 30일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서병호 장로)가 주최하는 제2회 남가주 어린이찬양경연대회가 ‘2015 Children in Praise’ 주제로 주님께

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에서 열린다. 어린이들이 한국어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마련한



제32회 HYM청년연합집회를 마치고 강사와 스태프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내 삶의 목적’을 두라  
HYM청년연합집회, 강사 송민우 목사, 특강 백은실

HYM(대표 더글러스킴)이 주최한 제32회 청년연합집회가 ‘내 삶의 목적’(고전10:31-33)이라는 주제로 18일과 19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월드플레이어센터에서 열렸다.  
강사 송민우 목사(애리조나등대교회 담임)는 첫째 날 말씀에서 “이번 집회의 주제인 ‘내 삶의 목적’이라는 표현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

장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말했다.  
송 목사는 첫째 날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부담감으로 다가오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대말은 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한 하나

님의 뜻은 하나님말씀에 순종하며 생활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둘째 날 말씀에서 송 목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만이 영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 변화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주시는 말씀 안에 있다. 그러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길 축원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송 목사는 “세상에 나가 맞서 싸우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다.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힘으로 그럴 수 없지만 예수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날마다 생각하며 나아가자.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던져야 할 본질적 질문은 주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 바라보고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32회 HYM청년연합집회는 첫 날 HYM연합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했으며 둘째 날 집회는 해브스밴드(리더 최천국 전도사)가 인도했다. 또한 토요일 오후 3시에는 글로벌 커피브레이크 대표인 백은실 집사가 강사로 나선가운데 ‘이미지 관리와 감동 커뮤니케이션’이란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이번 경연대회는 5월 30일(토)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예선을 갖게 되며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본선을 치르게 된다.  
참가부문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독창, 중창(2-11명 이하), 합창(12명 이상)이며 각 부문별 상장과 트로피 그리고 연주회 특전이 부여된다.  
참가비는 독창 40달러, 중창 60달

리, 합창 100달러이며 등록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다. 접수는 이메일 jaesook21168@gmail.com, sckcmusicians@google-groups.com로 하면 된다.  
▲문의: (562)569-3806서병호 회장, (213)235-8972김재숙 (기사제공: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 담임목사 청빙공고

**자/격/요/건**

1. 현재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 교단소속 목사 또는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는 개혁 교단 소속 목사
2. 정규 신학 대학원(M.Div.) 졸업하고 목사 안수 후 5년 이상 목회 경력이 있으신 분
3. 40~55세(기혼) 되신 분
4. 캐나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캐나다 영주권/ 워킹퍼밋 소지하신 분
5. 신원조회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처**

청빙위원장 : 조준상 장로 (416-449-7600)  
서류 보내실 주소 : Attn to John Cho  
1993 Leslie St., Toronto, On Canada M3B 2M3  
이메일 보낼곳 : newconcept@c21toronto.com

**제/출/마/감 2015년 6월 30일까지**

\* 전화문의는 사양합니다.

## 가든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몸소 실천하며 헌신하는 참된 종을 찾고 있습니다.

The Korean Garden Church

**제/출/서/류**

1. 이력서(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첨부 - 목사/사모) 1부
2. 자기소개서(성장배경, 앞으로 2세 교육에 대한 Vision 포함, Letter 용지 3매 이내)
3. 목회계획서(목회 철학, 비전과 계획, Letter 용지 5매 이내)
4. 목사 안수 증명서
5. 대학(B.A) 및 신학대학원(M.Div.) 졸업증명서 1부
6. 현재 소속 교단확인서 및 증명할 공증 사본 1부
7. 설교 동영상 2편(구약 1편/신약 1편)
8. 추천서 2통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꼭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 가든교회 청빙위원회 일동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교협 체육대회 참가신청

뉴욕교협(회장 이재덕 목사)이 제 30회 체육대회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일시는 5월 25(월, 메모리데이) 오전 8시부터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 파크에서 열린다.

반주자 청빙

뉴욕강성장로교회(담임 이종명 목사)가 반주자를 청빙한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와 금요찬양예배 반주자로 전공자.

주일학교 전도사 청빙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사랑의동산교회(담임 강신용 목사)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를 청빙한다.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줄 신학교 재학생이거나 졸업자.

뉴욕초대교회 학부모 세미나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에서 "스마트폰 시대, 미디어 중독 다스리기" 제목으로 학부모세미나를 개최한다. 일시는 5월 17일(주) 오후 1시30분부터 3시까지.

반주자 청빙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아침 2부 예배 성가대 반주자를 청빙한다. 시간은 주일아침 8시10분부터 10시반까지.

푸 / 린 / 초 / 장

(4면에서 계속)

왕상1:8절에 보면 엘리야도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고, 세례 요한도 가죽 띠를 띠고(마3:4).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 하려면 허리에 띠를 띠어야 합니다. 시93:1절에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시며, 피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남이 주시는 힘으로 하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6:13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마귀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진리의 띠를 띠어야만 하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37절에 보니까 깨어 있는 사람에게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8절에 '이같이 하는 자' 즉 충성되게 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9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띤 사람은 도적이 훔쳐도 훔치지 못합니다.



퀸즈장로교회에서 열린 퍼스펙티브스 세미나에서 20일 저녁 방대식 목사가 강의를 하고 있다.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확장"

퀸즈장로교회 퍼스펙티브스 세미나 1백여명 참여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퍼스펙티브스(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집중훈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 세미나는 헌신자들이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배우고 구체적으로 헌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임위원장인 한철호 선교사와 방대식, 김요한, 손창남 목사가 퍼스펙티브스의 4가지 관점에 대해 각각 강의를 인도한다.

평소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선교사를 파송하며 매년 단기선교를 하고 있는 퀸즈장로교회는 이번 퍼스펙티브스 집중훈련 받는 것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선교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9일 '콰르텟 파리'가 뉴욕늘기쁜교회에서 공연하고 있다.

정상의 클라리넷 4중주단 부활절 특별공연

'콰르텟 파리', 19일 뉴욕늘기쁜교회서

"콰르텟 파리(Quartet PIRI)"의 마지막 부활절 특별공연이 지난 19일 뉴욕늘기쁜교회(담임 김홍석 목사)에서 열렸다.

이들의 정상급 한인 클라리네티스트 네 명이 뜻을 함께 하여 클라리넷 4중주단으로 활발한 연주 활동 중인 콰르텟 파리는 "The Sound of Glory"라는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찬송가와 성가곡들과 탬벨, 비발디, 하이든, 루치니 등 대 작곡가들의 밝고 생동감 넘치는 클래식 명곡들을 연주했다.

평을 받고 있는 박건씨, 그리고 현재 줄리어드유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차세대 최고의 클라리네티스트로 인정받고 있는 김윤아씨로 구성됐다.

콰르텟 파리의 부활절 특별공연은 새언약교회(12일), 뉴저지 한소망교회(18일)에서 각각 열렸다.

뉴욕교계 심부름꾼 손아곰 집사 소천

뉴욕 교계에서 오랫동안 심부름꾼으로 섬겨왔던 고 손아곰 집사(사신)의 장례가 뉴욕교협 주관으로 진행됐다.



고/아름다운교회, 중/후러싱제일교회 1등

뉴욕청소년센터 주최 제16회 청소년농구대회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대표 송병기 목사, 사무총장 공재규)가 주최한 제16회 청소년 농구대회가 지난 18일 프레스비 메도우 홀리 카우 농구장에서 열렸다.

총 12개 교회에서 고등부 10개 팀, 중등부 6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등부: 1등 아름다운교회, 2등 뉴욕수정교회, 3등 퀸즈한인교회 △중등부: 1등 후러싱제일교회, 2등 아름다운 교회, 3등 퀸즈한인교회. <유원정 기자>



뉴욕청소년센터가 주최한 농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14일 개최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뉴욕대회 경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정기총회

5월 18-19일, 뉴저지 주예수사랑교회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가 5월 18일(월) 오후 4시부터 19일(화) 정오까지 뉴저지 주예수사랑교회(담임 강유남 목사)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는 주제로 열린다.

한편 이번 총회는 준비하는 뉴욕노회는 지난 14일 뉴저지 동산중앙선교교회(담임 김중태 목사)에서 제76회 정기 노회를 개최하고 김종대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동산중앙선교교회의 교회 명칭 변경과 퀸즈소망교회(정용문 전도사) 설립 등의 청원 안건들을 처리했다.

임원 선거 결과 △부노회장은 한상흠 목사 △서기 정영민 목사 △회록 서기 권영길 목사 △회계 변병두 장로 등이 선출됐다.

총회를 앞두고 직전 총회장 정익수 목사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3대 혁신을 담은 현의안을 청원했다. 3대 혁신은 다음과 같다. (1)과거 불법과 관행적인 편법을 단호히 혁신함 (2)개혁주의 칼빈, 신학사상 정치로 교단의 정체성을 회복함 (3)이중교적자 및 한국의 목회자와 기준 미달자는 제외됨. <유원정 기자>

행됐다.

고 손아곰 집사는 집회 포스터 부착을 비롯해 뉴욕교계 행사 때마다 테이بل 세팅 등의 일을 자처해오며 뉴욕 교계를 도왔던 인물. 지난해 생활고로 인해 살던 거처를 뉴욕나눔의 집으로 옮겨 보호를 받아왔으며 부활절을 앞둔 지난 4월 1일 오후 10시 30분 경 플러싱병원 응급실에서 안타깝게 소천했다.

미교회가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라 정상적 장례 절차가 불가능했으나 교계의 몇몇 목회자들이 적극 나서

면서 장례가 이뤄지게 됐다.

영결예배는 21일 저녁 7시 제미장사에서 열렸으며, 22일 오전 10시 발인예배후 St. Michael's Cemetery에서 화장예배를 드렸다.

장례위원장은 뉴욕교협 회장 이재덕 목사, 장례위원은 방지가 목사, 안창의 목사, 김윤길 신부 등의 원로를 비롯해 교협 임원과 목회자와 장로 등 28명이 참여했다. <유원정 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동부(NY, NJ) 교회' (East Church) featuring a grid of church listings with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 central graphic with the tex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and '하와이 및 북미 지역'.



# “디아스포라교회 영광을 회복하자”

## 2015 OC 영적 대각성 전도집회 성황

2015 오렌지카운티 영적대각성 전도집회가 17일 오후 7시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18일 오후 7시 오렌지중앙교회(담임 이경원 목사), 그리고 19일 오후 4시30분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이신웅 목사(신길교회 담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가 강사로 초청된 가운데 열렸다.

금요일 저녁에 열린 첫날집회는 은혜한인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한기홍 목사의 사회로 시작, 송규식 목사(OC교협 기쁨회장)가 기도했으며, 김기동 목사(OC교협회장)가 환영사를, 그리고 윤우경 집사(OC평신도연합회 회장)가 성경봉독했다.

‘오직복음’(요5:39-40, 눅4:1-1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이신웅 목사는 “우리들이 신앙 생활 하는데 기준이 성경말씀이 되어야 한다”며, “성경은 공부하는 자세로 봐야 하고 깊고 정확하게 봐야 한다, 말씀은 탐구하는 자세로 보면 말씀 속에 감춰진 보화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영적각성집회를 하지만 영적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은 영의 생활이다, 부활이 믿어지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않게 된다. 부활이 믿어지는 자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십자가 부활을 추구하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본질이다. 소유 중



은혜한인교회 찬양7주년 예배 및 교회이전 감사음악예배가 열렸다. 사진은 감사음악회 출연진들 왼쪽부터 플루트 연주자 왕테리 집사, 소프라노 우희경 사모, CCM사역자 이정영 자매, 테너 오위영 목사, 소프라노 조현주 집사

## 설립 5주년 은혜의강교회

### 예배 및 교회이전 감사음악예배

은혜의강교회(담임 이상훈 목사) 설립 5주년 기념 및 교회이전 감사음악예배가 19일 오후 4시30분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감사음악회, 3부 만찬으로 이어졌다.

이상훈 담임목사와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신남식 목사가 기도했으며, 찰스 클러크 목사가 ‘임재안에 축제’(시 16:1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 음악회는 왕테리 집사가 플루트 연주를, 소프라노 우희경 사모가 ‘내 평생 가는 길과 ‘주기도문’을, CCM사역자 이정영 자매가 ‘강하고 담대하라’와 ‘주만 바라볼까’

를, 테너 오위영 목사가 ‘Agus Dei’, ‘험한 십자가 능력있네’, 그리고 소프라노 조현주 집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불렀다.

이날 예배는 이상훈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은혜의강교회는 지난 2010년 4월 18일 가데나에서 설립했으며 강기평 초대목사가 10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개척했다. 2대 담임인 이상훈 목사는 2014년 8월 취임했으며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새 주소는 1407 Crenshaw Bl, #101, Torrance.

(박준호 기자)



OC영적대각성집회에서 이신웅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미주평안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임직감사예배를 마치고 기념 촬영했다.

## “받은 직분 통해 충성 다하라”

### 미주평안교회 설립40주년 및 임직 감사예배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 설립40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 감사예배가 19일 오후 3시 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임승진 담임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최중훈 장로 기도에 이어 고명진 목사(수원중앙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고명진 목사는 ‘소원’(빌1:20)이란 제목으로 “이미 받은 직분을 통해 충성을 다하고 있는 임직자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세상에서는 성직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교회 내에서 임직자들에게 성직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영광스러운 일이며 일이요 또한 축복”이라며 임

직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서약과 안수식이 있는 후 본 교회 원로 송정명 목사가 권면과 축사를, 박기수 명예장로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임직자들은 교회에 기납품을 증정했으며 임승진 담임목사는 임직자들에게 임직패를 증정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임직받은 일꾼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로: 이도성 △집사 안수: 박왕서 △권사취임: 김영옥 박정옥 정석순 △명예장로 추대: 남인현 서광수 이필준 박기수 △명예안수 집사: 김정길 김중현 박찬문. (정리: 이성자 기자)



새생명교회 승광철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마치고 순서맡은자들이 기념사진촬영하고 있다

## 새생명교회 승광철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

새생명교회(담임 승광철 목사)는 승광철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를 19일 오후 5시에 개최했다.

이천 목사(ANC온누리교회)와 ANC온누리교회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는 김태형 목사(ANC온누리교회 차세대담임)가 기도했으며 경희음대 동문 친구들이 특송을 했다.

이어 유진소 목사(ANC온누리교회 담임)가 ‘교회의 꿈’(골1:1-2)이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박성민 교수(아주사퍼시픽대학교 부총장) 이 권면을, 박민규 목사(발렌시아 교협회장)와 옥스나드연합감리교회)와 김경대 목사(동부사랑교회)가 축사, 승광철 목사가 답사했다.

이날 예배는 공평교 목사(CRC GLA노회 한인코디네이터, 소망커뮤니티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새생명교회)

# 서부교회게 게시판

## 우크라이나선교 후원음악회

우크라이나 선교를 돕기 위한 선교음악회가 5월 3일(주) 오후 6시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한의운 목사 /1747 S. Nogales St Rowland Hts)에서 열린다. 한미우크라이나선교회가 준비한 본 선교음악회를 통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의제한 최광능 목사의 손자인 최영민 우크라이나선교사(OC교협 회장 역임)를 돕게 된다. 이번 음악회에는 소노로스 싱어즈, 보치 엘레스티, LA 레디싱어즈, KAM 코랄, 바리톤 장상근, 오토 하프 월드챔피언 최용순과 남가주주님의교회 호신나 성가대가 출연한다.

▲문의: (562)714-0691 이재근 목사

## My Battle Cry Conference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My Battle Cry Conference를 5월 1일(금) 오후 7시에 개최한다.

▲문의: (213)268-8508, 598-6336

## 월드미션대 제17회 학생음악페스티벌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가 주최하는 제17회 학생음악페스티벌이 ‘The Passion of Baroque’라는 주제로 25일(토) 오후 7시30분 찬양교회(3401 W 3Rd St, LA)에서 개최된다. 티켓가격은 20달러.

▲문의: (213)388-1000

## 연예인초청 찬양간증집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연예인 초청 찬양간증집회를 ‘영혼을 춤추게 하는 노래’라는 주제로 5월 3일(주) 오후 6시에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양동근, 정준, 아이언이 출연한다. 입장료는 10달러.

▲문의: (714)446-6200

## 싸우스베이한인교회 춘계부흥성회

싸우스베이한인교회(담임 안대진 목사) 춘계부흥성회가 오는 24일(금)부터 26일(주)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이은수 목사(뉴욕근세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24일 오후 8시, 25일 오전 6시, 오후 8시, 26일 오전 9시, 11시, 오후 2시.

▲문의: (310)372-4751

## 9월 7일까지...미국내 가장 큰 규모

### 캘리포니아 사이언스센터 사해문서 전시회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700 Exposition Park Dr, LA)는 이스라엘 문화재청(IAA, Israel Antiquities Authority)의 지원으로 ‘사해문서 전시회’(Dead Sea Scrolls: The Exhibition)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미국에서 열렸던 사해문서 전시회중 가장 큰 규모이며, 전시회를 위해 사본들이 이스라엘 밖으로 나온 것도 처음이다.

전시회에서는 1947년부터 1956년까지 사해 북서쪽 해변에 있는 키르벳 쿠파트 근처의 동굴들에서 발견된 고대문서들과 당시 이스라엘 주민들의 삶과 문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 600여점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스라엘 통곡의 벽(Jerusalem's Western Wall)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통곡의 벽에서 가져온 3톤의 석회암 기둥 머리도 전시돼있다.

문서들은 창세기, 이사야, 시편 등의 일부 기록과 토빗기 등 외경, 그리고 1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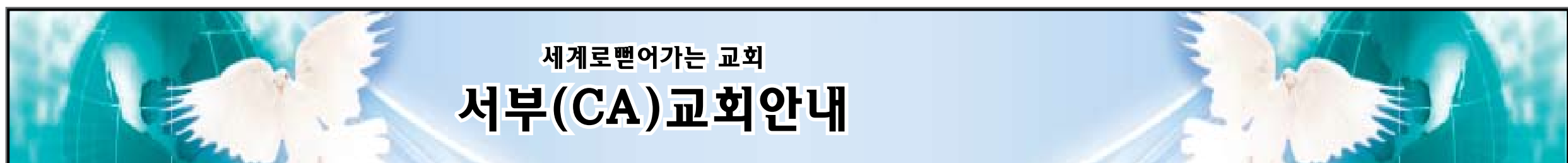
대 결혼문서를 포함하고 있다. 20개 텍스트가 한번에 10쪽씩 로테이션해 전시된다.

전시장은 빛과 온도, 습도 조절 등 문서의 보호를 위해 상당히 어두운 상태로 전시되고 있어 사실상 관람객들은 문서를 볼 수는 있으나 읽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청동시대부터 비잔틴 시대까지 근동지방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향유했던 보석류, 도자기와 향아리, 왕의 인장이 새겨진 파편들, 무기, 이방 여신상, 유골을 담았던 납골석 등 이스라엘 지역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유물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아이맥스 영화관에 ‘예루살렘3D’ 영상물을 볼 수 있다. 전시회는 오는 9월 7일까지 열린다. 입장료 등에 대한 정보는 <http://calliforniasciencecenter.org>에서 찾을 수 있다.

(박준호 기자)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1부예배: 오전 7:45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예배: 오전 11:30 수-금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20 주일3부예배: 오전 9:40 주일4부예배: 오후 1:10 주일5부예배: 오후 12:30 주일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7: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찬양회: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5:30 영어예배: 오전 6:30 E.M. 찬양회: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b>남가주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ASolidrock@gmail.com	
<b>남가주리더교회</b> 담임목사: 김요셉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 목 요 예배: 오후 7:00 새 벽 기도: 오전 6:00(월-토) www.scrdm.org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838 S. Western Ave., L.A., CA 90018	<b>남가주사우라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평일예배: 오후 7:00 영안권 (영소-KO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ckpc.org	<b>등문교회</b> 담임목사: 김상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전 9:0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7 www.egkpc.org	<b>동양선교교회</b> 담임목사: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찬양예배: 오전 9:30 3부 영어예배: 오전 11:00 4부 영어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월-토)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323)466-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b>디아스포라선교회</b>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 마련한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2회 배 경음), Tel: (213)210-6890 1213 Figueroa St., Brea, CA 90033	<b>드림교회</b>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1부예배: 오전 9:30 영어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519 S. Western Ave., 9079 Tel: (213)380-9377, 9079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0577 3521 Lomita Bl, #202-A Torrance CA, 90505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1부예배: 오전 7:15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청년) 성일영어예배: 오전 11:00 대일영어예배: 오후 1:00 일일예배: 오후 1:00(수요일: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목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새벽(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정성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0200 Fax: (626)793-1670 301 S. Kingsley Dr, F2-B, L.A., CA 90020
<b>얼바인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b>윌셔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요업종이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찬양예배: 365일 24시간 온로 www.gracemc.com Tel: (714)448-6200, Fax: (714)448-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	<b>좋은마음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www.samsungchurch.org Tel: (714)648-9289 Fax: (714)648-9284 16800 Imprimer Hwy, Yorba Linda CA 92886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5:30(월-토) www.cornestonechurch.com / e-mail: pastor@cornestonechurch.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2	<b>토런스오프교회</b>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 평)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영) 주일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미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c.org Tel: 310-370-2009,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 미래목회포럼 '이슈&미래' 발간 한국교회 과제와 해결책 담다

미래목회포럼이 20일 발간한 '이슈&미래'는 한국교회의 공과(功過)를 소개하고, 한국교회가 직면한 과제와 해결책을 담고 있다.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기 위한'이라는 발간 취지에 따라 11개 분야 중 마지막인 '미래전략'에서는 미래학자 신학자 사회학자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우리나라를 강타한 사회현상과 그로 인해 한국교회 안에 야기될 문제점을 적시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교회 위기는 저출산·고령화와 종교지형의 변화=고령화 시대와 미래전략'에 대해 집필한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최윤식 소장은 "한국사회에서 초스피드로 진행 중인 고령화는 교회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 추세라면 2028년에는 전체 기독교인의 60%가 55세 이상의 은퇴자이고, 현금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 교회는 재정난에 시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소장은 "성도들이 은퇴 후의 욕을 갖고 살 수 있게 새로운 비전(사명)을 찾도록 돕고, 성도들이 은퇴에 대비해 경제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고령화 시대에 근거 없는 희망을 제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박윤옥(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회장) 의원은 '저출산과 출산장려운동'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낙태문제도 해결하고 미혼모의 아이들을 사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키워낼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핀란드는 혼전 임신한 여고생들의 아기 양육 포기를 막기 위해 학교

에도 보육시설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원대 사회교육과 김성근 교수는 '한국종교와 개신교의 미래'란 제목의 논문을 통해 "한국교회는 1970-80년대 개교회주의와 성장주의를 지향하면서 폭발적 성장을 했다"면서도 "이 와중에 교회가 보여준 진자본주의적 성향은 많은 국민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 주면서 최근 들어 타종교의 성장을 돕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종교재벌이라고 까지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의 대형교회들은 성장주의의 교회 운영과 재정 사용에 대해 일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형태의 교회, 성도의 등장=새로운 미래의 교회들에 대해 집필한 웨스트민스터신학대 김선일 교수는 "미래의 교회는 주일성수와 종교활동, 건물 등에 편

중됐던 신앙 양식에서 벗어나겠"이라고 예측했다. 김 교수는 "현대에는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운송업과 요식업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오히려 종교 생활만으로 주일을 보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주일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주중에 모여 성경공부를 하고, 성찬 등을 나누는 일명 '주중교회'가 등장했다"고 말했다. 또 "높은 땅값과 임대비 등의 이유로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카페나 학원 등 주중의 비즈니스 공간을 주일에 예배처소로 변환시키는 교회들이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말한다.

정 교수는 "2013년 300명의 가나안 성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이 기독교인으로서는 정체성이 약하고, 수시로 교회를 옮길 것이라는 편견을 뒤집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응답자의 27.2%가 서리집사 이상의 직분을 받았고, 교회를 떠나기 전 평균 14.2년 교회를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가나안 성도가 되기 전 평균 6개월 이상을 고민했으나, 이 기간 중 목회자나 주변 신자들은 그들의 의

## 저출산·고령화...개교회주의, 성장주의 종교지형 변화 비정형화 교회 출현...교회 각 구성원 역량 발휘하도록

늘고 있다"며 "최근엔 사이버 예배도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비정형화된 교회 출현을 무조건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들이 비록 소수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언하는 공동체라면 한국교회의 협력자로 여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실천신대 정재영 교수는 '탈현대와 새로운 기독교인의 출현'을 제목으로 한 논문에서 "오늘날은 집단보다는 개인이 중시되며 제도 종교의 의례 등을 따르지 않으면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한 뒤 '가나안 성도'를 예로 들었다. 가나안 성도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는 상대가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가나안 성도들은 지나치게 제도화 또는 관료제화 돼 있는 기존 교회에 대한 저항으로 교회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이들이 모여 만든 신앙모임이 늘고 있다는 것이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현재 국내 가나안 성도의 인구는 약 1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을 선별리 교회화하려고 하거나 제도권을 흡수하려고 하면 더 큰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교회 지도자가 성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의사결정을 하고, 교회 구성원들이 주체성을 갖고 각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도들의 이탈을 막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 "동성애 반대 시민 폭행...서울시 사과하라" 교계·시민단체 서울시청서 박원순 시장 규탄 회견

1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피켓을 든 50여명이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김규호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굳은 표정으로 줄지어 섰다. 마이크를 잡은 김 사무총장은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들"이라며 "동성애 축제를 대한민국 심장부인 서울광장에 허용하고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대표 등을 폭행한 서울시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탈동성

애인권포럼,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등 교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동성애 조장 서울시 규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8일 서울시는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승인해 많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자녀들에게 비윤리적인 성문화가 확산되는 것을 염려하는 많은 학부모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함으로써 동성애

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는 서울시의 비인권적인 만행을 강력 규탄한다"며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서울시 직원들이 반(反)동성애시민단체 '예수재단' 임의한 목사를 폭행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친(親)동성애자들은 동성애에 폐해는 철저히 숨기면서 인권적 측면만을 부각시켜 마치 동성애를 누구든지 마음 놓고 즐겨도 되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며 "심지어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을 통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을 감옥에 가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

석자들은 '박 시장은 동성애 조장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승인을 취소하라' '서울시 직원의 반동성애 시민단체 대표 폭행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홀라이트 대표 이요나 목사는 "동성애자를 위한 진정한 인권은 평생 동성애자로 살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에서 탈출해 다시금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일 청원경찰을 동원해 동성애 반대 예배를 드리는 목회자와 성도를 강제로 끌어내고 예배집기를 들어냈다. 교계는 이를 예배방해와 헌법상 '종교와 집회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 "보호자의 종교 강요는 아동학대" 교육부·교육청 지침에 일선학교 '위반시...' 가정통신문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홈페이지에 올린 교육자료에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를 아동학대 유형 중 하나인 '정서학대'로 분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 자료를 참고해 교사들을 교육시키라는 공문을 각 교육청에 보냈고, 교육청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일부 학교는 교육청 공문을 토대로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는 아동학대이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이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권하는 것도 아동학대로 비춰질 수 있음을 간과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16일 현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를 아동학대 유형인 정서학대로 소개하고 있다. 다른 정서학대로는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뱉는 행위, 사발을 시키거나 공개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중순 서울시교육청 등 각 교육청에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를 아동학대 유형으로 안내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자료를 참조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서울시교육청 등은 각급 초·중·고등학교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연 1회 이상 학년 초에 아동학대 관련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6월 중 각급 학교별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을 파악할 것이라는 사실도 함께 전달했다.

서울시교육청 공문에 따라 서울 송파구 A초등학교는 지난 9일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제목으로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A초등학교는 가정통신문에서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행위는 아동학대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이라고 밝혔다. 같은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교직원회의를 통해 연수교육까지 마쳤다.

학부모들은 "종교행위 강요 운운

## 예정합동 목사부총회장 선거 4파전 예상 김선규, 김종준, 장대용, 강대구 목사 추천받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 차기 목사부총회장 선거는 4파전이 될 전망이다.

예정합동은 16일 "전국 정기노회 결과 오는 9월 개최되는 제100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김선규(68·성남 성현교회) 김종준(61·서울 꽃동산교회) 장대용(67·서울수도중앙교회) 강대구(64·대구일침교회) 목사가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예정합동은 영남, 서울·서북, 호남 등 3개 지역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목사부총회장 후보를 추천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서북 지역 차례다.

김선규 목사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한국장로교부흥사회 대표회장, 총회 사기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총회 화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종준 목사는 총신대 운영이사장과 총회 교육부장, 한서

은 문제가 많다"며 반발했다. 선민교육학부모임학 이재흥 대표는 "아동학대 처벌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 등에는 신앙교육이 아동학대라는 내용이 없다"며 "부모 신앙을 자녀에게 말하거나 전파하면 징역을 살고 벌금을 내야 한다면 자녀에게 기도를 함께 하자거나 교회에 같이 가자고도 못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생명살림운동본부 대표 강사근 장로는 "의도가 무엇인지 관계기관에 문의해야 한다"며 "유럽처럼 가정의 신앙교육을 정부가 간섭하는 일이 한국에서도 시작됐다"고 우려했다.

교계 전문가들은 가정의 신앙교육을 아동학대 유형에 포함시킨 것은 종교를 가진 부모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산지의 이태희 미국 변호사는 "법 이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부모에 의한 자녀의 신앙교육을 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독교총연합회 대표 박상원 목사는 "북한에서 학생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고백하라는 것과 유사하다"며 "이는 자녀에게 신앙을 유전시키지 않고 대를 끊겠다는 유령 사회주의자들의 전술이다. 아동학대에 신앙교육을 포함시킨 말무자의 파면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연회회 심만섭 사무국장은 "부모는 종교의 좋은 점 때문에 종교행위를 권면하는 것인데 그걸 아동학대로 본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안티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 입법을 우회적으로 실현시키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성산대학교학원대학교 전 부총장 현용수 목사는 "성경은 가정에서 안식일, 유월절 등 절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자손대대 전수하라(출12장, 신6:4-9)고 말한다"며 "어릴 때 신앙교육은 일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봉은사역명 변경 요청 공문'

### 강남구, 서울시에 제출기로

서울 강남구청(구청장 신연희)이 봉은사역명을 코엑스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내기로 했다.

코엑스역명추진위원회(역명추진위)는 19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불성실한 답변서를 지적하기 위해 지난 17일 강남구청을 항의 방문했다"며 "관계자들로부터 코엑스역명 변경 요청 공문을 서울시에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장원석 강남구청 교통정책과장은 국민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최근 역명추진위가 코엑스로 역명

을 바꿔 달라는 의견을 냈다"며 "조만간 서울시에 코엑스로 역명을 변경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전달(雄雉·하급관청이 상급관청으로 공문서류를 보내는 것)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 구장은 "봉은사역명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역명을 병기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역명 개정 여부는 결정권을 지닌 서울시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했다. 강남구청이 엉터리 설문조사를 실시해 역명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데 대해서도 "설문조사는 객관적으

로 진행됐다. 봉은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이다. 역명은 강남구지명위원회가 결정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역명추진위는 항의방문 때 지상·지하 명칭 불일치 등 역명 제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회신서 및 재질의서도 접수했다. 역명추진위는 "(929정거장이 건립된) 지상 명칭은 코엑스 사거리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하철역명이 봉은사역이기 때문에 상호 모순이 있다"면서 "코엑스 사거리명은 무역회관과 코엑스가 들어서면서부터 사용되던 거리명칭이기 때문에 지하철역명도 코엑스역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주민 의견수렴의 절차적 위법성이 있고 '지하철 역명 제정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코엑스로 역명을 바꿔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총회장 이영훈 목사)은 봉은사역명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서를 교단 차원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은 "최근 임원회에서 '역에서 가까운 공공 시설물인 코엑스를 두고 120m 떨어진 특정 종교시설을 역명으로 선정할 것은 시민정서를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지금의 역명을 철회하고 코엑스역으로 바꿀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연회(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도 18일 역명추진위의 요청에 따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호텔에서 면담을 갖고 역명변경 작업을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농어촌 목회 얼마나 힘들길래...

### 농촌교회 목사 보이스피싱에 연루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7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자신의 은행계좌를 빌려주는 등 협조한 대가로 81만원을 받은 정모(52) 목사를 구속했다. 교인 60-70명을 둔 전남의 한 면소재지 교회에서 목회 중인 정 목사는 자녀 셋을 키우면서 학비와 생활비로 지게 된 빚 2000만원을 갚으려다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2013년 10월 경기도 성남의 A교회 박모 목사는 신도 3명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가 경찰에 붙잡

혔다. 경찰은 A교회 신도수가 부족 줄면서 교회를 꾸러가기 힘들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 목회자들이 각종 범죄에 노출되면서 교계 안팎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등의 미자립·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생계형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목회 윤리 강화뿐 아니라 기초생활비 지원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중엔 '알바', 주말만 목회...작은 교회들의 현실=서울의 한 상가 교회에서 10명 미만의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40대 후반의 A목사는 3년째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핸들을 잡아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벌지만, 목회를 하며 기본적 생활을 하는 데도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A목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이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밥벌이를 하고 있다"면서 "개척교회로 인한 상처 때문에 딸이 아예 교회를 떠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10년 동안 반지상사에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B(52)목사 부부의 처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성도 수가 3-4명에서

더 이상 늘지 않는 상황에서 생활고가 가중돼 이혼 위기까지 몰렸다. 가까스로 이혼은 모면했지만 B 목사의 사모는 몇 년 전부터 요양원에서 하루 3교대 간병인 일을 하고 있다. 수입이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되지만 대학생 자녀 둘의 학비를 대기에도 빠듯하다.

이들 '투잡(two job)' 목회자의 사례는 극히 일반적이다. 주요 교단에서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몰래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현장 목회자들의 전언이다. 대리운전이나 택시기사, 간병인, 마트·세탁소 임시 점원, 목욕탕 세신사 등 직종은 다양하다.

◇교단 차원의 교육·제도 보완

서둘러야=미자립·개척교회의 궁핍한 현실의 배경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교회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강한 교회'를 찾는 성도들 때문에 대형교회와 중소교회 간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성도 수가 많으면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해지고, 교회 시설 등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새신자가 증가한다. 반면 성도 수가 적으면 현금감소, 교회 재정자립도 저하 등이 겹치면서 목회자 및 교역자들의 생활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목회자들의 범죄 연루는 용납될 수 없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사무총장 이상화 목사는 20일 "범죄를 저지른 목회자에게 안수를 준 교

단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목회자가 사회적 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 윤리 교육을 실시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농촌선교훈련원 원장 차홍도 목사는 "각 교단들은 목회자들의 최저생계비 보장과 함께 영성 함양 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985년부터 30년 동안 수많은 농어촌 개척교회들의 존폐를 경험한 차 목사는 "(목회자 범죄의) 근본 원인은 교회가 세속·물질주의에 넘어가고 있다는 데 있다"면서 "목회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선교 칼럼

2015년 2월 10일부터 24일까지 주브라질 한국문화원(O Centro Cultural Coreano Brasil)에서 텃빈 총만 전시회(Plenitude Vazia)를 가졌다. 우리의 전통한복을 입고 한국음식도 시식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 현대 미술의 물성과 정신성 전을 개최하였는데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품들을 소개함으로써 한국 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려고 하였다. 특별히 문평의 달 함라리가 대표작으로 소개되었는데 물성 그대로 화폭에 드러나는 작품으로서 자연 본연의 풍부한 빛과 색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백색의 미를 품은 달항아리를 통하여 오히려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미적 특징은 수위의 삶을 즐겼던 조선시대의 선비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번 전시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관하였는데 플레지오 디아스포라 학생들도 전시회에 참관을 하였다. 플레지오 디아스포라는 2014년부터 한국어과를 신설하고 중학교 전교생으로 하여금 한글을 정규과목으로 배우게 했다 학생 가운데 왜 우리가 한국말을 배우야 하나?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대답하기를 "지금 세계는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한 나라 언어라도 배우는 것이 살아가는데 유익할 것으로 안다. 특히 한국과 브라질은 좋은 관계 속에 서로 무비자 협정을 하고 경제교류를 하면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서로를 인정하며 배우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나누게 될 것이다. 요즘 한국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늘고 있고 한국의 기업에 들어가 일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한국말과 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 학교에 감사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플레지오 디아스포라는 학생들이 한국과 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면서 한글교육과 동시에 한국의 예술인 태권도를 가르쳤다. 쌍파울 주 행정국(PREFEITURA DA CIDADE DE SAO PAULO SECRETARIA DO GOVERNO MUNICIPAL)과 리베르타지 아카데미(단장 김요진)와 협약에 의해 태권도를 보급하게 했는데 플레지오 디아스포라가 신청하며 배우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태극기가 새겨진 도복을 입고 한국말로 된 구령을 외치면서 태권도를 배우며 한국의 예절도 배우게 되었다.

한편 소리나라 주장호 원장이 한국의 동요와 노래와 한류바람을 타고 들어온 한국의 일반가요 팝 그리고 찬양을 가르치고 있다.

**강성철 선교사**  
(브라질)



또한 브라질에 진출한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LG공방 등을 방문하여 한국기업의 실체와 규모 그리고 최신 시설을 갖추어 로봇과 함께 일하며 생산되는 자동차, 세탁기 TV 등을 보며 거기에서 일하는 브라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장학습을 할 뿐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많은 도전을 받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생겨났다. 또한 쌍파울교육(석진 원장)의 주선으로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엑스포박람회에 초대 받았다. 코트라가 준비해준 3대의 버스를 타고 박람회에 도착한 학생들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에서 나오는 값진 상품들이 자기들이 그토록 갖기를 소망하는 제품들을 텔레비전 광고에서 서만 보았던 제품들을 직접 만져 보고 작동해 보면서 한국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으며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브라질에 살면서 열대문화 초기 동인인 황운현 시인(2012년5월 세상을 떠남)은 "때로 문화 문화를 하는데 과연 문화가 무엇일까? 아무래도 문화라는 것이 어떤 관념이나 사상의 형태는 아닌 것 같다며 새로 사들인 모던한 디자인의 새 가구보다도 그려져 3대쯤 물려받은 내려온 이조공예품인 오래된 문갑과 같은 케케묵었지만 무언가 내밀하고 친밀한 느낌이 드는 허름한 가구같은 것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만져볼 수 있고, 더불어 볼 수 있고, 쓰다듬을 수 있는 그 무언가 우리의 주변에 실재하는 것 그런 것이 문화인 것 같다"고 했다. 그 말에 동감한다.

오래전에 노인대학을 다니다 미국을 간 하덕려 학우가 조그만 자기상을 주고 갔다. 그런데 그상이 쓸수록 정감이 가고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이것이 문화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가끔 먹는 청국장에서 어머니의 향내가 나고 고국의 정취를 느끼는 것도 음식이 문화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다.

아내는 해마다 매실을 한 자루 사서 매실주를 만든다. 포도나 매실 등은 자연의 멋이다. 그것을 잘 가꾸어 좋은 상품을 만들고 그 향

내를 즐기며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면 옛 어른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것은 문화라고 생각한다.

포도 매실 등 과실주를 만드는 것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 사람의 소질과 개성과 교양의 관계가 찾아볼 수 있다. 쏟아지는 빗물은 금세 홍수를 이루듯이 많은 지식이 홍수를 이루며 쏟아져 나와 우리 주변에 깔려 있다 해도 그 지식이 각자의 소질과 개성을 바탕으로 하여 정신적으로 승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냥 바쁘게 지나가고 아무런 의미도 느끼지 못하고 시골법적 대는 왜라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아무와도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지내면 그것은 문화가 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양의 재료를 들여 비싼 돈을 지불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화일 수 없으며 많이 마시고 주고받았다 할지라도 문화인이라 할 수 없다.

살다보니 벌써 나그네 이민자의 삶이 33년이나 되었다. 이제는 아버지의 바통을 받아 마지막 주자가 되어 끝인 지점을 가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고민해본다. 현실의 문화와 상황을 수용하고 오래 동안 우리의 선조들이 지켜온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변하지 않고 유지하므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들을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브라질에는 크게 나누어 세 가지의 기층문화가 있다 하나는 폴투각이 브라질에 들어오기 전부터 남미의 이곳저곳에 산재하여 살고 있는 진짜 원주민인 인디오 문화이고, 또 하나는 광활한 이땅을 개간하기 위해 수도 없이 불타려온 흑인 노예들과 함께 들어온 포르투갈의 리베리아 문화가 거대한 브라질 땅을 받쳐 들고 있는 기층문화이다.

여기에 세계 각국의 문화가 채색되어 현란하기 짝이 없는 다양한 문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해마다 설바 축제를 보면 알 수 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의 문화가 삼바축제에 주제로 소개된 적도 있다. 문제는 다양한 문화 속에 한국

의 뿌리를 찾고 한국인의 얼과 말 그리고 글과 그림 음악으로 표현된 문화 활동을 열심히 함으로 한국인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고 본다.

다양한 문화 속에 파묻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서를 심본 살리어 누리며 즐길 뿐 아니라 타종족들과도 공유하며 우리의 말과 한글을 장려하여 보급하므로 우리들의 자존은 물론 세계 모든 민족이 한글을 배울 의욕을 갖도록 좋은 작품을 만들어보자. 싸이의 강남스타일, 태권도를 비롯한 한국인이 개발한 게임,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뛰어난 문화를 세계인과 더불어 나눔으로 한국의 말과 글 그리고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브라질 안에서 문화를 즐기며 살자.

세계 역사를 뒤적거리다 보면 말을 잃어버린 종족들이 수도 없이 역사의 무대 밖으로 사라져버려 쇠망한 예를 볼 수 있다. 비록 디아스포라 이민자로 브라질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값진 유산인 한국말과 글을 잘 가르치며 우리의 문화를 잘 보존하면서 그 가치를 깨달아 사랑하고 자랑하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1세대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후손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어느 사회학자가 지적했듯이 오늘날은 복합적 아이덴티티 시대다. 이 말은 한국과 브라질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서로 배척하지 않는 상황을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바람직한 디아스포라 한국인이 가져야 할 자세이다.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포스트 냉전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21세기 글로벌시대를 살아가는 차세대들에게는 아이덴티티를 하나만으로 한정지우는 사고방식은 아무래도 냉전시대의 낡은 생각이다 우리는 브라질이라는 광대한 땅에서 세계 모든 민족과 어귀를 나란히 하고 살아가려면 복합적이고 개방적인 문화상황 속에서 한편으로는 브라질에 동화되어 저들과 야미고 사회를 이루어가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좋은 것을 누리며 브라질인들에게 알리어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본다. 약간의 혼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옛것을 연구하여 장점을 살리고 개혁하여 멋과 맛을 동시에 살리는 가운데 여유를 즐기며 사는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브라질 안에서 살면서 한국문화를 즐기며 살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보자.

## 한국국가조찬기도회와 월남을 다녀와서

### -한국국가 조찬기도회와 월남선교의 전망



**김광은장로**  
(남가주장로성가단 초대단장)

지난 3월 한국 국가조찬기도회 초청으로 남가주장로성가단원과 부인 권사찬양단 70여명이 47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주는 나의 선한목자'를 불렀다.

22년 전인 1993년 한국 국회 주관(2대 박세제 장로 회장) 조찬기도회에 76명의 남가주장로성가단원이 초청을 받아 조찬기도회에서 감격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조국 한국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였고 우리 장로성가단의 간절한 기도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한국의 경제가 크게 성장하여 온 것에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왔다.

이번 국가 조찬기도회에는 4천여 명의 국가 각기관 대표들과 전 세계 한국인 교계 대표들이 참석하는 거대한 국가 행사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과 격려사는 참으로 은혜스러웠다. 그리고 다음으로 월남의 선교 상을 알고 싶고 또 남가주장로성가단이 후원한 월남 흥부지역 흥부교회당 건축 헌당식 예배에도 참석할 기회가 있어 월남 호치민시를 방문했다.

버스로 4시간정도 달려 도착한 남부 월남 흥부시 조그만 촌마을에 남가주장로성가단의 후원으로 세워진 교회당 헌당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내가 다니는 나성영학교회 선교부가 과거 월남선교후원회를 발족시켜 두 분의 협동 선교사를 후원했었다. 그러나 몇 년 후 그 협동선교사들은 월남을 떠나 한분은 캄보디아로 다른 한분은 킬키스칸으로 옮기면서 월남선교후원회가 없어졌고 그후로 월남에 대한 선교정책은 사라지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나도 월남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 이유는 월남이 공산화 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혹은 무종교정책으로 교회가 다 국가기관에 통제를 받아 선교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인식되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월남방문으로 월남교회가 성장해가고 있음을 알게 되어 마음에 크게 감동과 은혜스런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특별히 현 남가주장로성가단 단장되는 이흥주 장로께서 오래전부터 한국의 월남 선교단체와 유대해서 여러 곳의 월남교회건축을 위해 개인적으로 많은 후원금

을 보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월남정부와 한국정부가 깊은 유대관계로 한국의 월남선교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왔음을 보며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후원과 한국의 기업체와의 활발한 계약체결로 월남 정부경제발전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음을 보게 됐다. 한국 기업체가 활발하게 높은 빌딩과 아파트 건립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았고 특히 한국정부와 월남정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잘 되어 진행되고 있음에 감격의 마음이 더해졌다.

특히 한국교계와 월남에 대한 선교적 유대관계는 너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보았다. 특히 이번기회에 남가주장로성가단원의 적극적인 후원회(6만불 상당)를 마련하여 흥부교회당을 훌륭하게 건축되어 있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흥주 장로가 개인적으로 월남에 신축교회당 후원금을 보내어 8곳에 새 교회당이 세워지게 된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의 정성어린 건축 후원금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며 그의 소망감에 찬사를 보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또 남가주장로성가단의 협조와 김성일 장로(직전단장), 김경생 장로, 함철수 장로 등이 여러 번 월남을 방문하면서 물질적, 헌신적 후원을 아끼지 않았음을 바라보면서 미주에 정착해 살고 있는 한인동포들과 한인교회들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공산국가인 월남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아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또한 월남이 한국 경제성장을 부러워하고 한국 정부와 적극적 유대관계에 있는 현실에서 한국 교계의 선교적 사명이 크게 전진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미주 교회연합체가 선교적 사명을 월남교회에 적극적으로 펼쳐간다면 월남 기독교 부흥에 크게 역사할 것을 나는 이번 월남 방문을 통해 확신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나는 월남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소망이 간절함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월남정부와 국민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월남 방문을 마쳤다.

▶ 연락처 323-468-1001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b>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예배: 오전 7: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b>벤엘교회</b>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청소년부: 오전 10시, [영양]: 오전 11시 유치, 유년: 오후 2: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b>샬롯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야간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704)529-0900 / (980)렉스켄 701 Scoblepark Road, Charlotte, NC 28209	<b>덴버에담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YKoreanChurch.com	<b>덴버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45 www.kpcd.org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www.kpcd.org
<b>앵커리지영리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b>엘파소영리문교회</b>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215)422-0288, Fax: (215)42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b>킬린노드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H), (254)531-1842(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EM)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www.mpcow.org	<b>주에스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4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www.jkcc.org	<b>큰무리교회</b>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www.josephvision21.org 매일저녁 7시(금, 토, 주일)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173 St. Charles Pl, Ellicott City, MD 21042
<b>타코마 삼일교회</b>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 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b>타코마새생명교회</b>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말만) Tel: (253)535-8207, 531-8424 Fax: (253)539-142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창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전 1시 수요일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ccr.com	<b>템프스코교회</b>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말만)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kpcpac.com Tel: (480)726-019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2:00 청년예배: 오후 7:45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c.org	<b>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한-영)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케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후1:11)”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하시는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케냐 마싱가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케냐는...

여전히 케냐는 불안합니다. 알 사바브가 3월 15일에 또 다시 만데라 주민을 공격하여 1명 사망, 3명 부상을 입혔고, 소말리아 주민 16명을 사망케 했습니다. 3월 22일 아침에 케냐 특수부대 해군, 공군 합동작전으로 알 사바브 요충지를 장악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마약과 무기거래로 알 사바브 자금조달 창구이자 석탄 공급지여서 알 사바브 충격이 클 것이지만 알 사바브 조직이 흔들리면 무계획적인 소규모 테러 또는 약탈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4월 2일 AFP 통신은 이날 테러범들이 학생들을 종교별로 분리한 뒤 이슬람교도 학생들은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허용했는데, 이는 이번 공격을 자행했다고 한 알사바브가 이전에 보였던 행동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케냐와 우리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디기 힘들 정도로 몹시 무렵

던 날씨가 3월 23일부터 시작한 비로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비가 오니 모든 만물이 다시 살아난듯 합니다.

마싱가 신학교 신학교는 2014-2015년 학사를 마치고 지난 3월 14일 23번째 졸업식을 하여 9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졸업식에서 이사



회 이사장이 이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참 살기 어려운 이곳에서 수년째 살면서 많은 일을 해주어 너무나 고맙다는 말을 할 때 좀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그만 두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다음 계절학기가 시작하는 4월 13일까지 쉬어야 하지만 선교사 훈련대학, 유치원교사대학에서 사용해야 할 책상을 만들어야 하고, 아직 칠하지 않은 화장실 문과 창틀에 페인트칠을 해야 합니다. 남자 기숙사와 선생님 집의 문틀을 개미가 다 갉아먹고 문도 없어서 문틀을 다시 만들고, 문을 다시 달고 페인트칠을 해야 합니다.

케냐 전체의 신학교가 3년제로 바뀌어서 방학에 하는 계절학기는 이번 4월부터 3년제가 됩니다. 한편 3년 동안 가르쳤던 “모린” 여 선생님이 더 공부하기 위해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다른 선생님이 와서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정은 5월 11일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건축 많이 기도해 주셔서 좋은 미션을 구해 지난 2월 2일부터 식당 겸 교회당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기공사와 벽을 끝내고 창틀과 문에 콘크리트 하는 ring beam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크기는 길이 100피트, 폭이 30피트입니다. 이대로 가면 곧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고 방심하다가 낭패를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기도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기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과 3월이 너무 더워서 일하는데 많이 지치고 힘들어

했던 미션이 2명, 헬퍼 2명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AIM에서 저희에게 준 돈으로는 건물을 완공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곳 노회에 이야기했더니 10월쯤 현지 교단의 사이라스 예고 총회장을 모시고 이곳 현지인들과 함께 특별 건축헌금을 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치원, 유치원 교사 대학, 선교사 훈련대학 유치원은 1월 7일 개원하여 9명의 어린이들이 등록하였으나, 한 명은 나이로비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고, 한 명은 집안 사정으로 나오지 않아 7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배우면서 웃음이 없던 아이들이 얼굴이 밝아지고 저희들과 장난도 많이칩니다. 아이들의 집 환경이 열악하고 교육자료나 장난감도 없어서 학교에 오면 울면서 집으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3월 31일 1학기를 마치면서 부모 모임을 가졌는데, 아이들이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다고 고마워함

니다. 어린이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도록, 또한 선생님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1월에 전국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데모를 해서 개강이 2주 늦어져서 저희도 2주 늦게 유치원 교사대학과 선교사 훈련대학을 개강할 예정입니다. 신학교가 방학일 때 신학교 기숙사를 사용하려



고 하는데, 이번에는 신학교 계절 학기와 같이 공부할 수밖에 없어서 이층 침대 20개를 만들어 여자 기숙사에 놓았습니다. 또한 선교사 훈련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등록금과 기숙사비가 없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없어서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한 과목을 가르치기로 하고, 나머지는 제가 다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7시간씩 2주간 가르치게 됩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또한 학생들이 많이 와서 공부하고 복음을 잘 전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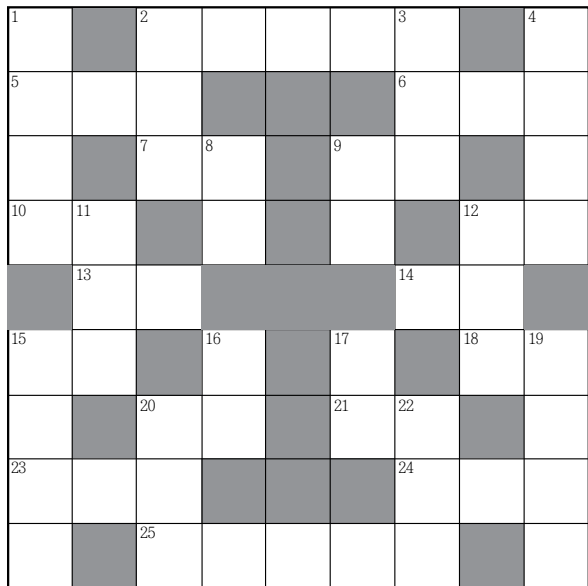
지난겨울은 유례없이 추워서 아이들이 이제 추운 곳을 싫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유난히 추웠기에 그만큼 부모의 사랑도 필요했는데 이번에도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영적, 육적으로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갈수록 이곳에 더 적응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갈수록 더 덥고, 지치고 약해지고 힘이 듭니다. 일은 점차로 많아지는데,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힘들어 도와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유난히 이 지역만이 힘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진행해 나가시기를 좋은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마싱가 신학교가 계속 신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군들을 길러 내도록 ■교회당/식당 건축이 잘 진행되도록 ■4월에 시작하는 선교사 훈련대학, 유치원 교사대학을 위해 ■가족의 건강을 위해, 특히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의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 위에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4월 케냐 마싱가에서 이사아, 이에경 선교사 드립니다. isaiah.lee@aimint.org

### 십자말 • Cross Word (77)

####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 <가로 푸는 열쇠>

- 2. 고린도교회의 신도들 바울이 이 사람 집에 유하며 전도하였다(행18:7).
- 5. 갈고랑이의 준말(출26:6).
- 6. 다락에 달린 문(사3:24).
- 7. 오므리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다(왕하9:8).
- 9. 객인(눅5:34).
- 10. 안전하게 잘 보호함(롬11:18).
- 12. 논밭에서 거둔 곡식(창41:47).
- 13. 서로 다투어 토론함(요9:3).
- 14. 관계를 맺고 합쳐서 하나로 됨(대하20:36).
- 15. 씩씩하고 강한 기상(삼상16:18).
- 18. 향냄새(아4:11).
- 20.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지(마4:17).
- 21. 여름철에 계속해서 많이 내리는 비(겔34:26).
- 23. 아버지의 만행(레20:20).
- 24. 스블론에 있는 레위족의 한 성읍(수21:34).
- 25. 예후의 아들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통치함(왕하14:17).

#### <세로 푸는 열쇠>

- 1. 유다왕 시드기야 9년, 싸움에 참전한 느부갓네살 군대의 한 방백(렘39:3).
- 2. 유대 족속 여할렐의 아들(대상4:16).
- 3. 구브로와 함께 연결된 헬라의 국가(창10:4).
- 4. 집 속에만 박혀있어 세상 밖에 나가지 아니함(느6:10).
- 8. 꼭 알맞음(렘4:1).
- 9. 제 손으로 친히(출35:25).
- 11. 싸움에 있었던 모든 사실의 기록(민21:14).
- 12. 구약 성막의 증거궤 앞에 배열하는 특별한 향로였다(출30:34).
- 15. 온통 하얗게 센 머리(고사성어).
- 16. 일의 끝장(벧전1:9).
- 17. 별 넷 장군(나3:17).
- 19. 르우벤 지파가 점령한 시혼의 한 성읍(렘48:23).
- 20. 찬송가338장(통) OOO 의지 없어서...
- 22. 솔로몬이 군량을 두었던 고을의 한 부분(왕상4:9).

#### 십자말 정답



P.I.O.N.E.E.R P.I.L.G.R.I.M T.O.U.R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대표전화 714-351-0124  
품위있는 성지순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와 함께 하시면 순례가 은혜스럽습니다.  
**여행상품 · 일정**  
터키/요르단/이스라엘-12일 \$3699  
터키/그리스/이태리-12일(13일) \$3499  
터키/그리스-10일 \$2799  
터키/이스라엘-10일 \$3199  
터키/밤모/그리스-11일 \$3299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세요!  
**714-351-0124** 성지전문 15년의 경력  
최적의 목사  
함께 하면 은혜스러운 순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PIONEER PILGRIM TOUR**  
새로운 성지순례의 지평은 연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 주소: 17510 Pioneer Blvd, #210 Artesia, CA 90701  
\* E-mail: choigh1115@gmail.com, choigh1115@hanmail.net \* 파이오니아 사무실: FAX.(562)403-3363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터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사역 현장을 찾아서 (4)

‘퍼스펙티브스’ 집중훈련 강사 한철호 선교사(선교한국 파트너스 상임위원장)

미주 한인교회여! 킹덤 드림을 꿈꾸라!

선교한국 파트너스 ‘퍼스펙티브스’ 집중훈련이 지난 18일부터 8일간에 걸쳐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 세미나 강의자 뉴욕에 온 상임위원장 한철호 선교사를 만나 21세기 선교와 미주한인교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금 자기 민족을 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곳들이 많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한인교회들이 생존모드에 걸려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을 축복하신다는 그 의미를 한인디아스포라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를 통해 다른 민족을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한인교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것이 아니고 선교의 킹덤 드림을 인식시킴으로서 디아스포라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비전을 가졌듯이 선교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퍼스펙티브스에 대한 소개

퍼스펙티브스(Perspectives)는 1973년 미국에서 개최된 알바니아교회(정년선교회)에서 선교에 헌신한 수많은 젊은이들을 돕기 위해 USCWM(US Center For World Mission)을 만든 랄프 윈터(Ralf Winter)박사에 의해서 시작됐다. 미주에서 이미 10만 명 이상이 본 훈련을 받았다. 세계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이 훈련을 기본 훈련으로 받고 있고, 대부분의 선교단체에서도 필수과정으로 인

-21세기 선교의 미래와 방향에 대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선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는 선교 전략이 바뀌어야 합니다. 로컬에서 가장 선호해왔던 것이 세계화인데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현지화)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단기선교 등으로 동시에 개발되어 선포화 된다는 것이죠. 세계화가 되면서 모든 곳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것이 21세기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교나 단기선교 모두 전략적이고 세밀한 선교는 잘 안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프리카 등에도 우물파기 선교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물파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상황에서 충분한 조사가 없다면 그들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가 교회의

20세기 말까지의 선교는 서구인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져왔습니다. 이제는 From west to west에서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비서구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기독교 왕국은 비서구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 한국선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 선교가 중요합니다.

본질적 이유라는 것 알아야 하며, 빠른 열매를 구하지 말고 참 선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에 있어서 주의할 점, 혹은 선교의 팁이 있다면?

문제는 선교를 프로그램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주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선교사 통해 현지 건물을 세우고 물건을 갖다 주고... 선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세상에서 복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가르치면 그리스도인은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한 것처럼 성경의 복은 흘러 보내야 합니다. 늘 해야 할 일이지 물론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주, 특히 뉴욕은 주변에 미전도 종족이 즐비합니다. 장거리 선교도 가야 하지만 모든 성도가 일년 내내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회마다 선교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지에 가서도 할 일이 없습니다. 언어도 못하는데 노방전도를 할 수도 없고...곳(good)과 베타(better). 베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일주일 가더라도 그들의 문화, 풍

습, 언어를 배우고 가야 합니다. 단기선교도 다 좋은 의도지만 전략적으로 베스트를 해야 합니다. 안가는 것 보다 의미는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낭비죠. 목회적 임업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 돈으로 내가 사는 곳에서 타민족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단기선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단기로 가지면 어떻게 장기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합니다. 같은 지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게 되면 필요를 알게 됩니다. 자칫하면 선교가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인간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습니다. 현지에는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의존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교적 측면에서 미주한인교회와 유리한 점이 있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디아스포라가 갖는 선교의 역할이 크죠. 모빌리티(mobility)가 중요한데 흠여집의 현상이 가속화되고 최근에 더욱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얼마전 필리핀에서 열린 로잔 디아스포라 포럼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부정적 의미(전쟁, 난민 등)로 생기지만 긍정적 측면도 상당합니다. 체첸인 선교사가 한 명도 없지만 뉴욕엔 체첸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로 하여

정하고 있다. 일반 교회와 대학생뿐만 아니라, 신학교에서도 선교기초과정으로 채택된 프로그램이다.

현재는 미국 외에도 한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전도 종족 운동과 전방개척선교운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0년부터 시작됐고, 현재 '선교한국 파트너스'가 공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퍼스펙티브스는 '관점'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훈련기간 동안 선교에 대한 '성경적 관점', '역사적 관점', '문화적 관점', 그리고 '전략적 관점'까지 총 네 가지 관점을 배우게 된다. 먼저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확인한다. 문화를 넘어 전략적 선교를 할 때 세계복음화 과업을 완수하게 된다.

-한철호 선교사는

강원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London Bible College와 필리핀 Asian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이후 오랫동안 IVF간사로 사역하면서, GCF대표간사와 선교한국 총무를 역임했으며 현재 선교한국 파트너스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유원정 기자)

(3면에서 계속)

그는 상업, 미디어, 통신, 부동산, 여행 사업을 하는 푸에고 엔터프라이즈의 설립자 겸 CEO다.

칸시오 CEO는 안내책자 대신 쿠바에 관한 최초의 이중언어 잡지 '온 쿠바(On Cuba)'를 창간해 미국과 쿠바에서 팔기 시작했다. 그 웹사이트 방문자는 한 달에 60만-120만 명이다.

칸시오는 아바나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모니카 레티시아는 유명한 가수였고 아버지 미겔 칸시오는 1960년대 쿠바의 비틀스로 알려진 4인조 밴드 '로스 자피로스'를 공동 조직했다. 1980년 카스트로가 미국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떠나라고 선언한 그 유명한 '마리엘 난민탈출 사건'으로 쿠바인 12만5000명이 작은 배 1700척을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당시 16세였던 칸시오는 어머니, 13세 여동생과 함께 쿠바를 떠났다. 그 얼마 전 그는 일류 고등학교에서 카스트로에 관한 농담을 하다가 퇴학당했다. 칸시오 CEO는 이렇게 돌아왔다. "어머니는 '이곳에선 네 미래가 없어. 우리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애미에 도착했지만 친척도 없고 갈 곳도 없었다. 그들은 오렌지볼 스타디움에 마련된 임시 수용소에서 3주를 지낸 뒤 사우스비치의 작은 단칸방으로 옮겼다. "3년 동안 어머니는 소파에서 주무셨고 나는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잤다. 어머니는 수년 동안 쿠바를 떠난 걸 후회했다."

쿠바에서 칸시오의 아버지는 문화부 산하 기관에서 일했지만 가족을 떠나보냈다는 이유로 실직 당했다. 그 후 거리 청소부로 일하다가 공사판에서 일했다. "나는 정장을 입은 유일한 공사장 일꾼"이라고 아버지가 편지에 썼다고 칸시오는 돌아왔다. 몇 년 뒤 아버지도 쿠바를 떠났다.

지금 칸시오 CEO는 미국, 특히 마이애미에서 쿠바 음악과 미술을 전파하는 문화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는 콘서트 약 140건, 뮤지 투어 30건을 기획했다. 그의 이력서는 쿠바-미국 문화전쟁의 입문서처럼 보인다. 1999년 칸시오는 유명한 쿠바 밴드 로스반반의 마이애미 콘서트를 기획했다. "우의 쿠바인들이 밖에서 달걀과 깡통을 던지는 동안 그들의 아들 딸은 안에서 춤을 췄다"고 칸시오는 돌아왔다.

미국-쿠바 관계가 변하면서 칸시오 CEO는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쿠바 건축과 지역 정보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잡지가 곧 발간될 예정이다. 그의 여행 잡지와 웹사이트, 송금 서비스 사업도 시작할 생각이다. 미국의 대형 통신회사 두 곳과 제휴해 쿠바인에게 인터넷과 휴대전화비를 보급할 계획도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쿠바인과 미국인에게 쿠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쿠바인의 현실이 어떤 지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현재의 사회주의 체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이 있다.

첫째는 물질적인 절대 결핍은 영적인 풍요로움을 구하고 또 그것을 얻게 만들었다. 경제적인 궁핍과는 반비례로 쿠바인들은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이 1960년대에 시작된 공산당식 문맹퇴치운동이다. 아이들을 학교에 안보내면 그 부모가 체포된다. 교육기회와 의료의 무료혜택은 국민들의 지적 수준뿐 아니라 질적 수준을 높였고, 지금은 이런 장점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교리 등을 철저히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습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글을 쓰고 읽는 취미가 있다. 그리고 모든 예배가 수화로 통역된다.

결론으로, 잠들어 있던 쿠바에 갑자기 잠재력이 넘치는 듯하다. 과도정부가 억누르곤 있지만 쿠바인은 근면하며 희망에 차 있다. 그 상황에서 과연 누가 수혜자가 되고 누가 뒤처질까? 쿠바의 미래는 새로운 자메이카일까? 체게바라 T셔츠와 카스트로식 군모 차림의 볼빨 후가객과 미혼남녀가 가득한 곳 말이다.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일까 최악의 시나리오일까?

자기 부정과 비하, 멸절과 파괴, 비교와 열등의식에 빠져 부정적 자아상을 품고 신음하는 현대인들 그러나 여기 사랑과 은혜, 꿈과 확신으로 가득한 창조적 자아상으로 **최고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 그대는 질그릇 인생인가, 청자, 백자 같은 곁작품 인생인가 연습과 리허설이 없는 **한 번 뿐인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대, 최고의 인생을 살아라

최고의 인생을 살아라

소강석 지음

이 시대 최고의 스토리텔러 설교자 소강석목사가 들려주는 또 하나의 명작 책을 펼치는 순간, 그대에게 최고 인생의 길이 열린다.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6년 '월간 문예시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아침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선정 출판문화상 최우수상, 미인부터 킹 파레이드 집행위원회가 수여하는 국제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 한국기독교선교대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및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 스펙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라! / 315면 / 12,000원
- 사경의 레베카 / 사경의 레베카 / 254면 / 10,000원
- 레위기상 정복하라 / 레위기상 정복하라 / 288면 / 11,000원
- 거룩의 재발견 / 거룩의 재발견 / 259면 / 11,000원



317면 / 13,000원